

EC(유럽공동체)와 스페인 경제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스페인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

최 윤 국(호성여대, 경제학)

I. 序 論

오늘날 세계는 참으로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변화만 보더라도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안보보다 경제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역내시장을 강화하고 장외장벽을 강화하는 경제 불력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EC, 북미에서는 NAFTA,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축으로 하는 NIES와 ASEAN, 여기에 중국·호주·파키스탄까지 연결하려는 엔 불럭, 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조짐, 남미의 다자간 무역협상체결의 가시화, 이외에 중동, 아프리카, 흑해에서도 경제 불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EC는 지리적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제도적 통합(Integración Institucional)에 기능적 통합(Integración Funcional)을 더하면서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EC는 최근 EFTA와 EEA(European Economic Area) 구성에 합의했다. 즉 12개국, 인구 3억 3천만명에서 19개국, 인구 3억 8천만명, GNP 5조달러, 세계 교역량의 45%를 점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EEA가 최종 목표가 아닐 것이며 향후 구 코메콘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EES(European Economic Space)를 형성하여 한지붕 세가족의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듯 EC는 다가오는 21C를 위해 조직화, 광역화하고 있다. 그러나 EC는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간주되지만, 12개 회원국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과 발전 과정을 밟아 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국가 연구가 지역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스페인을 선정하여 EC 가입까지의 발전과정 및 노력, EC 경제·산업구조에서의 스페인의 현 위치 그리고 향후 전망을 내다본다.

II. EC (Comunidad Europea : 유럽공동체) 統合의 개요

1. EC 統合의 기원

유럽통합, 유럽 합중국, 유럽연합, 유럽 '하나의 집'.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하나로된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제창된 개념들이다. 유럽을 하나로 만들자는 유럽 건설의 선구자는 유럽 현대사에서 볼 때 장 모네Jean Monnet로 기록된다. 프랑스인으로서는 온화한 성품의 이상주의자 장 모네는 2차 대전 후 그의 평생 숙원인 '유럽 합중국'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엇그제까지 적국이었던 서독(전후 1949년 본을 수도로 하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창설자인 Adenauer 재상은 민주주의 구현에 힘쓰며 장 모네와 유럽통합에 힘썼다.)을 이 대열에 동참시켰다. 중무기 생산원료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유럽에서 되풀이 되어온 전쟁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La Comunidad Europea del Carbón y del Acero: CECA)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와 연방주의자들이 이룩한 중요 업적의 하나이다.¹⁾ 그러나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장 모네보다 330년이나 먼저 태어난 16C의 대철학자 데카르트(1556-1650)를 '유럽 하나되기 운동'의 시조로 내세우며²⁾, 데카르트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발행된 데카르트 기념주화는 유럽통합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액면 금액도 모두 유럽통화단위³⁾ (UCE: la Unidad de Cuenta Europea)로 표시됐다. 데카르트는 대철학자이며 동시에 수학, 물리학, 천문학, 기계학,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팔방미인의 달인이었다. 그는 프랑스인이지만 일찍부터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 유럽 각국으로 수많은 여행을 다녔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당대의 유럽 지성들과 교류한 데서부터 그의 유럽통합이론의 기초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현대사에서 유럽통합의 시조는 장 모네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그는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원조를 얻는데 앞장서 프랑스를 구했고, 반나치운동에도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이 통합되지 않으면 결국은 몰락할 것"을 깨닫고 1952년 CECA를 창설해 EC창설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후에,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로 재임시에는 드골 대통령에게 "대서양

1) Ramón Tamames: "La CE Y El Gobierno Mundial" en Anuario, El país 1991. p.14.

2) 동아일보, 1991년 6월 26일 수요일 특파원 광장

3) 영어로는 ECU라고 하며, 1 ECU $\approx$ 7.1 프랑 $\approx$ 857.1원에 해당함.

에서 우랄까지”라는 매력적 구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유럽통합을 위한 외길을 걸었다. 지난 1988년 11월 그가 프랑스의 위인 묘소인 팡테옹(Pantheon)에 안치될 때 EC 12개국이 모두 참석했고, EC 국기가 게양됐으며, 유럽 국가(國歌)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울려 퍼진 것도 ‘유럽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이제 장 모네가 아닌 데카르트를 유럽통합구상의 시조로 내세우는 것은 유럽통합의 역사적 연원이 더 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 EC의 발전과정

유럽에서 소규모의 경제 통합을 시도한 것은 1948년에 성립된 EI Benelux(Be는 벨기에, ne는 네덜란드, lux는 룩셈부르크)의 관세동맹(uni6n aduanera)으로써 현 유럽공동체의 기원(Primer antecedente de la CEE)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운동의 발단은 1950년 프랑스의 外相 슈먼에 의해 발표된 슈먼 플랜(EI Plan Schuman)에서 찾을 수 있다.⁴⁾ 이 계획에서 슈먼은 “서독과 프랑스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유럽제국이 함께 참가하는 최고기관에서 관리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영국은 主權의 제약을 꺼려 참가하지 않았으며, 北歐와 그 밖의 中立主義國家는 이 제안이 정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여 참가를 거부하였다. 결국, 1951년 4월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도합 6개국 만으로 歐洲·鐵鋼共同體조약이 조인되었다. CECA는 출범 후 초국가기관인 최고기관(Alta Autoridad Común)에 의해 운영되면서 가맹국 6개국 간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무역을 증가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CECA의 순조로운 진전은 가맹국들로 하여금 유럽경제공동체(통칭 유럽공동시장; Comunidad Econ6mica Europea: CEE. 영어로는 EEC)를 결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CECA 6개국은 1957년 3월 原子力共同體(Comunidad de Energía At6mica Europea: 보통 영어로 해서 Euratom이라 한다)와 함께 CEE발족을 위한 로마 조약(Tratado de Roma)에 조인함으로써 유럽공동시장은 1958년 1월 1일 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Euratom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초국가적 관리를 목적으로 발족한 것이다. 따라서 1958년 발족한 CEE는 이러한 일련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형성을 통한 실익 추구하고 함께 유럽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자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의 산물이기도 하다. 1958년의 경제통합 이래 CEE 회원국들

4) Rom6n Tamames, *El Mercado Com6n Europeo ; una Perspectiva espa6ola y latinoamericana*, Alianza Universidad, Madrid, 1982, pp.44~45

내에서는 ‘유럽 재건설’을 지향하려는 열기가 있었으며, 성장, 고용 및 물가 등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1967년 7월에는 각각 독립되어 있었던 CECA, EURATOM, CEE의 집행기관의 단일 통합을 실현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 三共同體는 유럽공동체(Comunidad Europea: CE)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들 회원국은 종래의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출발하여, 1973년 1월 덴마크, 5)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여 9개국이 되었으며, 80년대에는 그리스(1981년 1월)와 스페인 및 포르투갈(1986년 1월)이 EC에 가입하게 되어 남유럽 쪽으로의 확대를 기하면서 총 12개국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III. EC와 스페인

1. 스페인의 역사(歷史)와 EC에로의 가입과정

스페인의 역사의 발전은 “단속(斷續)의 연속(連續)”이라 할 수 있다. 이베리아 반도의 선사시대에 관한 역사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 전기 구석기시대, 구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Gibraltar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인류의 직접적 선조인 현생인류(現生人類: Homo Sapiens)가 등장한 것은 후기 구석기시대로 크로마뇽인이 존재했다는 것은 유명한 알타미라(Altamira)⁶⁾ 동굴벽화가 증명해 주고 있다. 기원전 4500년 경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동부 연안에 촌락이 탄생하게 되고, 기원전 3000년 경에는 신석기문화가 보급되었다. 이 무렵, 아프리카로부터 농경기술을 지닌 민족이 Almería 지방에 정주하면서 농업을 동남과 서남지방으로 확산시켰다. 기원전 1900-1600년 경에는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셈족계(族系)의 페니키아인(fenicios)이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해 왔다. 오리엔트의 3대 문명-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레타-과 활발한 상업활동을 행하고 있었던 페니키아인은 오리엔트 문명을 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였던 것이다. 이들에 의해 청동 주조기술이 전래되어 청동기문화가 번영하게 되었다. 청동에 필요한 주석이 지중해 지방에서는 이베리아 반도 서북부에서 대량으로 산출되어 당시에

5) 그린란드(Greenlandia)는 덴마크의 일부로 CE에 가입했으나, 1982년 국민투표에 따라 2월 1일부터 CE에서 탈퇴했음.

6) 1879 스페인 귀족 Don Marcelino Sautuola가 발견했으며 벽화에 나타난 사냥 장면의 묘사는 획득·수확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광을 받았다. 이렇듯 지중해의 중심지와 연계된 이베리아 반도에는 그리스인, 카르타고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면서 반도의 지중해 연안부에 고대문화를 형성했다. 기원전 900-600년 경에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인도·유럽어족이 침입하여, 지중해 동방으로부터 이주해 온 타부족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요소를 지닌 諸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원전 3C 이베리아 반도는 카르타고를 물리친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로마는 이후 700여년에 걸쳐 지배하면서 종교, 언어, 문화, 정치제도, 통화제도, 법률 등을 반도에 이식시켰다. 특히 고도의 토목기술이 도입되어, 현재에도 잔존해 있는 신전, 도로, 교량 등이 정교하게 완성되어있다. 도로의 경우 이베리아 반도 전체로 볼 때 건설거리는 약 21,000km에 달하며 이는 현재에도 스페인의 주요 도로로서 차량과 사람이 교통되고 있으며, 거대한 석교(石橋)도 현존하고 있다. 5C 들어 반도에는 게르만 민족이 출현한다. 475년 게르만 민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다른 게르만 민족을 압도하며 서고트 왕국을 건설하여 약 300년에 걸쳐 지배세력을 형성했다. 7C 들어 서고트 왕국은 당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711년 무슬만(musulmames)의 침략을 받아, 732년에는 이슬람군이 이베리아 반도의 약 1/3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슬람 교도는 약 6만명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적으로 로마인이 건설한 문화유산을 받아들여, 그 문화를 고도로 발달시킨 것이 이슬람 교도였다. 이들 이슬람인들은 약 8C에 걸쳐 반도를 지배하였는데, 이로 인해 스페인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이슬람 문화가 번영하였으며 북의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이 유럽국가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문화와 문명을 발달케 하였다. 후에 18C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유럽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슬람 시대에 도시에는 상하수도가 완비되었고, 농촌에는 관개시설이 발달하였다. 이같은 시설은 로마인이 건설한 도로, 석교 등과 더불어 1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붕괴되지 않고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인들이 건설해 놓은 하수도는 오늘날 스페인이 거리청소를 할 때 물을 사용하여 하수도로 흘러 보내는 데 아무 어려움도 없다. 북 아프리카의 사막으로부터 들어온 이슬람교도는 쌀, 면(綿), 사당(砂糖) 등 농업기술에 정통하여, 그 기술을 확산시켰다. 여기서 생산된 상품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유럽 각지로 유통되었다. 이렇듯 스페인 경제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와 같은 이민족의 활약에 의해 발전되었다. 농업, 관개기술 등 유형·무형의 높은 이슬람 문화는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후 스페인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전래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지배세력이 유럽에 직접 건너가지 않고 이베리아 반도에 정주한 것은 스페인이 이슬람 문화를 유연성 있게 받아들였기 때

문이다. 유럽은 이슬람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핵심으로 하는 정신적·문화적 통일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유럽화”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혼합문화⁷⁾를 형성해 나갔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스페인에는 그리스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의 지식인들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여 “문명개화(文明開化)”시대를 이룩한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고전, 철학, 아라비아 문학 등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학문의 대도시가 된 꼬르도바(Córdoba)에는 학자와 유럽 각지로부터 유학생이 모여들었다. 이리하여 당시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아라비아의 의학, 수학, 천문학, 라틴어 등이 유학생에 의해 유럽으로 소개되어졌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숫자도 스페인을 통해 유럽으로 전래된 것이다. 꼬르도바의 번영으로 인한 학문의 융성은 중세 유럽문화를 최성기(最盛期)로 이끌어준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이같은 영향은 최종적으로는 서구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하여 유럽의 대변혁을 성공시켰다. 이와같은 역사는 스페인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스페인은 이민족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또한 그 문화를 받아 들이는 데에도 별다른 저항감이 없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 그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재정복(Reconquista)작업은 활발히 진행되어 1492년 무슬만의 마지막 거점인 그라나다(Granada)가 함락됨으로써 약 8C에 걸친 아랍인들의 지배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세시대도 끝나고 근세기(Edad Moderna)로 접어들면서, 카톨릭 왕조는(Reyes Católicos)는 콜럼부스를 후원하여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제국(El sol no se ponía nunca en los dominios de España)”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 그러나 17C, 18C에 이르러 스페인은 지적, 물질적으로 쇠퇴기에 직면한다. 19C 초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1814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군을 축출한다. 이 시기에 중남미의 스페인 식민지 국가들은 1810-1824 사이에 독립을 선언하게 됨으로써 스페인은 세계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1873년 스페인 국민들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 제 1공화국을 맞게 되나 곧(1874년) 다시 왕정으로 복고되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31년에 제 2공화국이 선포된다. 그러나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

7) 이같은 스페인에 들어온 제민족의 이주와 점령의 결과는 음식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음식으로 발렌시아의 paella를 들 수 있다. 이 paella 요리는 바닥이 평평한 둥으로 된 냄비에 쌀과 해초, 조개류, 오징어, 소세지, 토마토, 피만, 와사비 등을 넣고 국물과 사프란으로 뜸을 들여 먹는다. 재료중에서 조개류와 오징어는 기원전에 침입했던 로마인의 식생활을 받아들였으며, 소세지는 5C에 들어온 게르만인이 전래했다. 쌀과 사프란은 8C에 스페인에 침입한 이슬람교도에 의해 사용되어졌으며, 토마토와 피만은 15C말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에서 가져온 것이다.

서 1936년 프랑코장군이 주도하는 스페인 내란을 맞게 된다. 이후 프랑코는 1975년 영면할 때까지 40여년간의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프랑코의 사후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프랑코 장군은 알폰소 13세의 손자인 후안 카를로스 황태자를 10살 되던 때 망명지인 로마로부터 불러들여 20여년에 걸쳐 제왕학(帝王學)을 전수시켰다.) 국왕이 Jefe de Estado에 취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스페인은 1936년 일어난 내란으로 공장은 파괴되고, 후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의 노후화가 발생하면서 他유럽국가에 비해 경제 부흥이 지연되었다. 이후에도 1956년의 흉작과 당시 독재 정권하에서 학생운동과 파업이 빈번하여 경제는 피폐되었다. 이같은 황폐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프랑코 정권은 “경제 안정화 계획”을 실행한다. 1958년 1월에는 OEEC(유럽 경제 협력기구)에 가맹한 것을 필두로 동년 5월에는 IMF(국제 통화 기금)에, 그리고 세계은행등의 국제기관에 가맹하였다. 프랑코는 금융긴축정책, 재정적자의 삭감에 의한 총수요억제, 무역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스페인 경제재건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자금원조를 약속받기에 이르렀다. 스페인은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유럽과의 과거의 역사적 단절을 떨쳐버리는 새로운 결합이 필요하다고 보아 1962년에 CEE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입신청서에서 스페인은 관세동맹을 통한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한편으로 국내경제발전의 실천약속 및 농산물 수출의 자제를 표명하고 있다.

이후 스페인 정부의 끈질긴 노력(1964-1970)으로 1970년에 CEE와 특혜무역협정(El Acuerdo Preferencial)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EE가 요구하는 가맹조건인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성립되지 않아, 특혜협정으로 단순한 자유교역의 장애물에 대한 점진적 철폐만이 이루어졌을 뿐 부문별로 구체적인 공동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코 사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77년에 이「AP」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식으로 가입승인을 간청하게 되었다. 1978년 1월 스페인은 가입협상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초창기 협상실무를 이끌었던 Leopoldo Calvo-Sotelo를 對구주공동체 정책장관(Ministro para las Relaciones con las Comunidades)에 임명하였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공동체에 가입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⁸⁾ 첫째, 우리도 유럽국가이며, 유럽인이다. 둘째, 통합은 9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 이상의 스페인인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사회적 권리를 차별없이 누리는 동등한 유럽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세째, 스페인 어부들은 구주공동체

8) Ramón Tamames, *El Mercado común Europeo*, Madrid Alianza Editorial, 1902. pp.347-348.

역(*aguas comunitarias*)에서 조업할 수 있다. 네째, 낙후된 스페인 경제체제의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 스페인의 개인 생산성 수준은 9개 회원국과 비교하여 50/100에도 도달하지 못하며, 농업, 공업,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타 회원국과 큰 발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격차는 과도기간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특히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일본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끝으로 유럽내의 오래된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유럽과 함께하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1970-1976년 기간 중 스페인과 CEE간에는 두가지의 대립개념⁹⁾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공동체의 규범으로써, 유럽의 통합은 경제를 근본으로 하되,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사회 및 경제법칙, 시장경제, 정당존재, 자유노조 등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프랑코 정부의 규범으로써, 1972~1975 기간 중 스페인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구조에 변형없이 경제적 목적의 통합을 시도한, 즉 정치적 문제를 제외시킨 경우이다. 이와 같이 프랑코 총통시대하의 스페인 독재정치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조건을 내세우는 CEE에서 가맹협상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프랑코의 사후, 스페인이 민주적 시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협상은 활발해졌다. 이같은 노력으로 1978년 4월 CEE 집행위원회는 각료 이사회에서 '확대 문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Reflexiones generales relativas a los problemas de la ampliación*)', '통상(*el fresco*)'으로 더 잘 알려진 보고서를 통해 남으로의(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위원회는 1979년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가맹신청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확대는 유럽 남부지역의 민주주의 강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전유럽에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1981년 2월 23일 일부 군에 의한 쿠데타 시도로 국회점령사건이 발생하여 전유럽을 전율하게 했으나, 곧 후안 카를로스 국왕의 민주주의에로의 확고한 신념 표명과 유럽 의회의 협상의 빠른 진척만이 스페인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도리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2년 이래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사회 노동당의 펠리페 곤살레스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 경제발전과 치안유지 등의 일관성있는 정책실현으로 확고한 민주주의를 다져나가면서 유럽공동체로의 가맹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결국, 스페인은 1962년

9) *Ibid*, pp.356~357.

가맹을 신청한 이래 24년만인 1986년 1월 1일을 기해 정식으로 가맹하여 12개 유럽 회원국의 일원으로써 1992년 CE의 단일시장 실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특히 EC의 단일시장이 실현되는 1992년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바르셀로나에서는 올림픽이 개최되고, 식민지와의 교역 중심지였던 세비야에서는 국제 박람회가 개최된다. 일본 경제가 1946년 동경 올림픽을 개최한 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나, 한국 경제가 1988년 올림픽 후 세계 경제의 전면에 부각된 것으로 보아 스페인은 1992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EC역내의 중요한 위치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EC와 스페인 경제환경 비교

2-1. 국민소득과 수요구조

스페인은 1936~1939년의 내란 이후 엄격한 경제자립정책으로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60년대의 경제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스페인은 40년대의 '배고픔의 시대'에서 60년대의 '개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¹⁰⁾ 이와 같이 60년대에 시작된 「경제적 기적」(el milagro económico)붐은 1973년까지 계속되어 진다. 따라서 스페인은 전통적 농업국에서 중진 공업국(país industrializado de grado medio)으로 변모되었으며, 당시 1인당 국민소득(la renta per capita)은 미국의 1/2수준에 달하였으나, 이탈리아와는 비슷하고 아일랜드 및 그리스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며, la OCDE (Organización para la Cooperación y el desarrollo Económico: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 국가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¹¹⁾ 이후 스페인은 제 1차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 저축보다 소비에 편승하는 소득과 생산의 재분배 발생, 투자수요의 하락 그리고 75년 프랑코 사후 1977년 3월 총선까지의 정치공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성장이 위축되었다. 특히 1975년 11월에서 1976년 10월까지는 경제·사회적 혼란기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의 심각성 앞에 정부와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간에 경제회복 우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몽클로아 협약(Pactos de la Moncloa)이라 한다.¹²⁾ 이러한 협약 내용은 78년 공포된 경제모델에 대한 헌

10) John Hooper, *Los españoles de hoy*, trad. al español Aníbal Leal, Javier Vergara editor, 1987, pp.23~28 참조할것.

11) José vercat 外, *España hoy*, secretaría de Estado para la Información, 1982, p.238.

12) Moncloa 협약의 주요 테마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안정화 계획(평가절

법 제38조 조항에서 분명해 진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듯이 스페인의 경제모델은 시장사회경제(Economía Social del Mercado)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칙들, 경제적 자유, 개인의 권리 및 재산의 인정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의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의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몽클로아 협약의 영향은 곧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수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79년 들어 새로운 소득세법 도입 등의 재정적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수지의 개선 및 물가상승의 억제가 이루어졌으나, 반면에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율이 크게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이란혁명의 여파로 발생한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정책의 동요기간을 맞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81년 칼로 소텔로 대통령의 경제 프로그램¹³⁾이 실현되며, 이어 1982년의 총선에서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의 펠리페 곤잘레스가 승리하면서 점진적인 자유화와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동시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펴게 되면서 경제적 붐을 다시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이렇게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게 된 데에는 1977년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낸 몽클로아 협약, 1981년 2월 23일 군부 쿠데타 시도시 현 국왕인 후안 카를로스 Juan Carlos 및 국민들의 노력으로 스페인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제거, 1976년 이래로 민주주의 지지 및 온건노선을 추구해온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주의 정부의 선거 공약에 대한 약속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유럽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C에로의 통합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데에 기인한다. 이제 1986년의 EC가입은 스페인으로는 또 하나의 시작단계를 의미한다. 스페인인들은 이제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분명한 성취감을 가지고, 그들의 과거의 스페인적 기질을 떨쳐 버리고 외부세계 특히 EC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의 경제성장은 EC가입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및 임금인상 억제.) 둘째, 실업수당의 국가 보조지원 및 사회보장의 제도적 정치마련. 셋째, 재정부문의 개혁.

13) 이 경제 프로그램은 크게 고용·투자·수출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José Vericat, *op.cit.*, pp 272~279를 참조할 것.

< 도표 1 > PNB(국민총생산)의 실질성장을

■ TASAS REALES DE CRECIMIENTO DEL PNB O PIB

Países(국별)	OCDE의 총 PNB에서 차지하는 비율			성장을		
	1987	1988	1989	1990(1)	1991(1)	1992(1)
Alemania, RF (서독)	8.9	3.7	3.9	4.2	3.0	2.6
Australia (호주)	1.6	3.8	4.9	2.2	2.3	2.3
Austria (오스트리아)	0.9	3.9	4.0	4.5	2.9	2.9
Bélgica (벨기에)	1.1	4.6	4.0	3.5	2.3	2.6
Canadá(2) (캐나다)	3.3	4.4	3.0	1.1	0.9	2.3
Dinamarca (덴마크)	0.8	0.2	1.4	1.0	0.8	2.1
España (스페인)	2.3	5.2	5.1	3.5	2.7	3.0
Estados Unidos (미국)	36.0	4.5	2.5	1.0	0.9	1.9
Finlandia (핀란드)	0.7	5.4	5.2	1.7	0.0	1.2
Francia(2) (프랑스)	7.1	3.8	3.6	2.5	2.3	2.6
Grecia (그리스)	0.4	4.1	2.8	1.2	1.1	2.0
Holanda (네덜란드)	1.7	2.7	4.1	3.0	2.0	2.3
Irlanda(2) (아일랜드)	0.2	1.4	5.0	4.4	3.2	3.1
Islandia (아이슬란드)	0.0	0.8	3.3	0.1	3.4	4.0
Italia(2) (이탈리아)	6.0	4.2	3.2	2.6	2.4	2.7
Japón (일본)	19.0	5.7	4.9	6.1	3.7	3.8
Luxemburgo (룩셈부르크)	0.0	5.5	6.1	2.6	2.8	3.1
Noruega (노르웨이)	0.7	1.2	5.0	3.0	3.2	2.7
Nueva Zelanda (뉴질랜드)	0.3	1.7	0.8	0.7	1.5	2.3
Portugal (포르투갈)	0.3	4.2	5.4	3.9	3.3	3.5
Reino Unido(2) (영국)	5.5	4.6	2.2	1.6	0.7	1.9
Suecia (스웨덴)	1.3	2.3	2.1	0.9	0.5	0.8
Suiza (스위스)	1.4	3.0	3.1	2.5	2.0	1.8
Turquía(2) (터키)	0.5	3.6	1.7	7.6	3.5	5.5
Total OCDE (OECD 전체)	100.0	4.4	3.4	2.8	2.0	2.5

(1) OCDE 추정치

(2) PIB

Fuente : "Perspectivas económicas de la OCDE", diciembre 1990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1974년까지 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1975년 이후에는 평균 2%이하, 1981~1985년에는 평균 1.5%까지 떨어졌다. 그러

나 1986년 EC에 가입하면서는 3.3%로 회복되고, 이어 1987~1989년 5%의 고도성장을 3년 연속하면서 EC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스페인은 전체 OCDE 국민총생산(PNB)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EC 12개 회원국이 35.2%를 기록하여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향후 스페인은 정치적 안정을 기조로 외국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EC통합의 가속화, 1992년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년의 세비야 무역박람회 등으로 인해 OCDE 유럽 회원국의 평균을 0.6% 정도 뛰어넘는 3% 내외의 높은 성장율을 1992년까지는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데에는 PIB 국내총생산 성장율보다 빠른 국내 총수요의 성장에 기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전망이다.

총지출구조에서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민간 소비부문은 1988~1992년에 해마다 약 3%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의 증대와 실질임금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스페인 북부의 이웃국가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생활수준과 다양한 상품의 구매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서 결국 임금상승에 대한 압력도 증가할 것이다. 스페인의 소비자들은 주로 내구성 소비재 즉, 자동차 및 전자용품 그리고 일용잡화 식료품에 높은 지출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용잡화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와 슈퍼마켓의 계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대중오락 역시 평균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 붐을 가라앉히기 위해 수입과 인플레이션 억제통한 국내수요 성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긴축정책 가운데는 부가가치세(IVA: Impuesto sobre valor añadido)의 인상, 이자율의 증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규제(이는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 등이 있다. 또한 이자율의 증가는 저축율을 다시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민간소비 성장율은 1988~1989년의 4%선에서 1990~1991년에는 1.4~1.9%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에는 수출과 투자부문의 호조로 3% 이상의 증가율을 다시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소비부문은 주로 급료나 노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실질임금과 공공부문의 고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984년 3%에서 1987년 8% 이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문의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고용은 총고용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와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감소될 수 있겠으나, 보건·사회 서비스분야에서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고용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투자부문은 당분간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치적 안정, 증가하는 주택수요, 기계장비 및 공장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총지출 구조에 있어 투자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1993년 유럽 단일시장의 출발을 앞두고 EC회원국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많은 해외투자가 유입됨으로 1992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투자 부문의 활성화는 결국 수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987년 EC로부터의 수입수요는 스페인 상품 수출의 1/3를 차지했으나 투자의 계속적 호전으로 인해 1992년에는 EC의 스페인 상품 수출은 전체의 1/4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990년까지는 수입이 수출의 증가율을 능가하였으나, 1991~1992년에는 수출의 성장율이 수입의 성장율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적자의 호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무역외수지는 관광 부문의 높은 성장율로 크게 호전될 것이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성장율을 보이는 해외투자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도표 2 > EC 회원국의 PIB 개관, 1989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지움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PIB(10억\$, 경상)	1,192	958	866	835	381	222	154	105	55	45	33
성장율(실질, %)	3.4	3.6	3.2	2.2	5.0	3.5	4.4	1.3	2.9	5.4	5.0
1인당 PIB(\$)	19,311	17,140	15,035	14,656	9,620	14,926	15,535	20,549	5,336	4,327	9,486

Fuente : WEF, *World Economic Outlook*, 1990.10

EIU, *각국 Country Profile*, 1990~1991

스페인은 빠른 PIB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인당 PIB는 EC회원국 중 그리스, 포르투갈과 더불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 이러한 연유로 1993년 단일시장 통합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회원국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EC지역의 저개발 지역이라 함은 그리스, 북아일랜드, 이탈리아 남부, 포르투갈, 스페인을 포함한 지역이다. 스페인의 경우 1인당 PIB가 유럽의 평균을 넘는 지역이 지중해의 Balears군도(스페인 총인구의 1.9%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한 곳이다. Cataluña와 Madrid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유럽의 평균 소득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스페인 전체를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17개 자치주 중에서 8개 주만이 스페인 평균을 넘고 있으며, 여기에 스페인 전체 인구의 55.4%가 집중되어 있다. 스페인 경제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지중해 연

안을 끼고 있는 Gerona에서 Cádiz까지이며, 내륙지방 특히 Extremadura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스페인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농업경제에서 산업 및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1년 농업, 임업, 수산업 부문에서의 1인당 PIB는 Cataluña의 4,600 ptas(158\$)에서부터 La Rioja의 64,400 ptas(698\$)까지였다. 산업부문의 1인당 PIB는 Ceuta, Melilla 및 Extremadura를 제외하고 라도 Andalucía의 94,400 ptas(1,023\$)에서 Vasco의 260,800 ptas(2,825\$)까지였으며, 서비스 부문의 1인당 PIB는 Castilla-León의 137,500 ptas(1,490\$)에서부터 Baleares의 383,100 ptas(4,150\$)까지였다.¹⁴⁾ 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보면, Madrid, Barcelona 그리고 Valencia에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자동차 회사, etc)의 유치로 큰 혜택을 입고 있으며, 이 중 Madrid와 Barcelona는 행정 및 문화 서비스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지중해 Sunbelt연안은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남동부 및 남부해안 지방에서는 과일 및 채소 재배의 성공으로 소득이 급증하고 있다. 반대로 내륙지방에서는 낮은 임금, 높은 실업, 인구감소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스페인의 북부지역은 지난 10년간의 침체를 벗어나 철강, 기계, 조선, 석탄업에서 다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은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 1992년 말까지 EC로부터의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 모든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2. 경상수지

스페인의 무역수지는 1980년 처음으로 100억\$를 뛰어넘는 적자를 기록한 이래 80년대 상반기까지는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적자감소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85년 이후에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무역적자는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수출의 증가는 EC를 중심으로한 선진국과의 인플레이격차 축소, 코스트 절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 수출선의 다변화에 기인한다. 한편, 수입의 증가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내수확대, 외국 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기계설비류의 수입증가, 對EC관세인하 등에 기인하고 있다.

1989년 이래로 스페인은 수출촉진정책을 펴고 있으나 수입 신장세가 높아

14) Mark Hudson and Rudcenko Spain to 1922, Special Rep, no 1138, EIU, 1988, pp.22~25.

1992년까지 무역적자 폭은 개선될 것같지 않다. 경상수지는 관광수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전수지의 향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와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방편으로 외국인 투자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스페인은 EC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3. 소비자물가 상승율

스페인의 인플레이션율은 느린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인플레이션율은 70년대를 지나면서 OCDE의 평균비율보다 우도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을 때 스페인은 他유럽국가들이 실시했던 긴축정책을 펴지 않았다. 통화억제에 관한 조치들의 필요성은 정치적 과도기(1975~1977년) 후반에 가서 인식되었다. 권위주의적 체제가 민주주의적 체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어려움 속에서 필요한 조치의 수용을 더디게 했으며, 과도기 기간 중 특히, 1977년 중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30%라는 사상 초유의 비율을 기록했다.¹⁵⁾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은 1977년의 총선거 이후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러 경제정책 및 통화조절에 관한 엄격한 프로그램이 실시된 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바로 효력을 나타내 1977년 후반기에는 크게 하락하였다. 1979년의 제 2차 석유파동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율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임금인상은 1974~1978년 기간 중에 24%의 평균 인상율을 보였으며, 동 기간 중 개인 실질임금의 평균 성장율은 6%의 인상율을 보여 주었다. 1979~1980년 기간의 임금인상율은 31.5%였으며, 개인 실질 임금 인상율은 2.8%를 보여 他서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다.¹⁶⁾ 최근 스페인의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 중의 하나가 인플레이 억제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4년까지의 두자리수 인플레이율에서 1985년 이래 한자리수의 인플레이율을 기록하면서 점차 OCDE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1987~1988년 5% 내외의 낮은 인플레이율을 보이고 있으나, 1989년 중에 임금인상과 수입물가상승에 기인하여 6.8%의 상승율을 보였다. 스페인 정부는 향후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실업흡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공공소비확대정책을 지양하기 위해 금융조작과 공공 지출억제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율을 5% 이하로 억제하고자 하나, 노조측의 임금인상 압력과

15) José Vericat 外, *España hoy*, op.cit. pp.267~268

16) *Ibid*.

수입물가상승, 그리고 내수확대지속 등의 영향으로 이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 외환보유고 및 외채

스페인의 외채는 1983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는 1970년 말과 1980년대 초에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차관을 끌어들이는 것에 기인한다. 1975년 말 85억\$에서 1983년 말 295\$까지 외채가 급증했다. 이후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까지 241억\$ 수준으로 외채가 감소되었다. 1987년 들어 민간부문의 외채가 국내의 높은 이자율로 급증하면서 외채 총액은 다시 증가한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외채의 신장을 보다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86년 EC가입 후 대외 신뢰도의 향상, 수출의 증가, 외국의 직접투자 급증, 스페인 화폐(peseta)의 강세로 인해 스페인은 채권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외채상환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 국내에서의 외채의 사용 구분을 보면 민간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0년 중반에는 자동차도로 건설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전기통신분야에 집중 사용되고 있다. 한편 공공기업 부문에서는 INI(국영산업공사)와 INH(국영탄화수소공사)의 외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외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의 총외채는 1992년 말에 400억~45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1987년 말의 외채가 PIB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1992년 말에는 11%가 됨을 의미한다.¹⁷⁾ 그러나 외채의 이자 지불은 스페인에 대한 외국의 신용도의 지속과 수출증가로 큰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5.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스페인은 면적에 있어 세계 205개국의 총 지표 면적 135,526,418Km²의 0.37%에 달하는 504,782km²(한반도의 2.3배 : 한반도 면적은 219,022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49위, EC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제 2위에 랭크되어 있다. 한편 인구수에 있어서 스페인은 3,892만명으로 EC국가 중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제 5위에 랭크되면서 그만큼 국내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연평균 증가율은 EC평균이 0.2%인데 비해 스페인은 0.8%로 EC국가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는 km²당 77명으로 EC평균 144.7명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인다. 장래의

17) Mark Hudson 外, *op.cit*, pp.89~90.

시장규모를 자능해 볼 수 있는 2000년 대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스페인은 계속 5위를 고수하게 된다. 향후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 되는 20대미만의 인구구성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EC국가들이 26~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스페인은 30%로 아일랜드의 38.3%에 이어 포르투갈과 함께 EC국가 중 두번째로 국민 평균 연령이 낮다. 또한 20~60대의 노동인구 구성 비율은 서독,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56%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은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의 지리적 분포의 특성을 보면, 스페인의 경우 전인구의 51.2%가 인구 규모 50,000명 이상의 110개市(Municipios)¹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로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으며, 발렌시아, 세비야, 사라고사, 말라가를 포함하는 6개 대도시에 총인구의 18.7%가 거주하고 있다. 자치주별 인구분포는 안달루시아를 선두로 카탈루냐, 마드리드, 발렌시아 등 인구 규모 200만명 이상의 주에 총인구의 75%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활동¹⁹⁾인구는 1, 482만명으로 총인구의 38.2%를 차지한다. 이는 EC 국가의 평균인 43.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의 참가율은 31.5%로 EC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한다. 한편,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家族從事者의 비율은 22%, 피고용자의 비율은 72%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피고용자 비율은 他유럽국가와 비교해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스페인은 앞으로 노동력의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또한 고용기회의 개선 즉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들에게 轉職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 전체로 볼 때 노동생산성의 증가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노동력 규모도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페인의 실업율은 취업인구성장율이 경제활동인구성장율을 능가하고 있으므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성장율은 OCDE의 평균성장율과 비슷하나 취업인구성장율은 스페인이 월등히 높다.

스페인의 실업율은 개선되고는 있으나, 단연 EC 12개 회원국중 제일 높다. 그러나 스페인 경제에 있어서 실업율은 70년대 중반까지는 낮았다. 1936~

18) 스페인 영토는 17개의 자치주(Comunidad Autónoma)와 Ceuta 및 Melilla(아프리카 북부)로 크게 분류되어 있으며, 52개의 지방(Provincias), 50개의 지방수도(Capital: Ceuta와 Melilla 제외), 그리고 시(Municipios)로 나뉜다.

19) 경제활동인구(Población activa)란 노동가능인구(보통 만14세 이상) 중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인구층을 말한다.

1939년의 내란 이후 복구 계획에 의거 노동자와 기업가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조합이 관료주의적인 프랑코주의(Franquismo)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없는 억지로 강요된 노동 평화와 낮은 임금 정책에 의해 1960년대에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자유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프랑코는 해직금지를 통한 고용유지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업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1960~1975년에 백만명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던 것도 낮은 실업율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자국내의 경제적 어려움과 유럽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스페인 이민 노동자들의 귀향으로 인해 실업율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사회노동당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한 '최저 임금제'와 '영구 고용계약'의 고용법을 채택하는 등으로 선진OCDE 국가중 가장 높은 20%대의 실업율을 안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노화와 젊은층의 실업율(총실업자 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스페인: 41%, 이탈리아: 37%, 프랑스: 23%, 영국: 18% 20))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EC 가입 이후에는 EC 관행에 따라 기존 고용법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경제(PIB)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2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실질적인 실업율은 10%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²¹⁾ 향후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규회사 설립에 관한 행정수속의 간소화, 기존기업 종업원의 잔업시간 단축, 벤처 비즈니스 추진책 등의 고용촉진책을 도입해 놓고 있다.

스페인의 산업별 취업구조는 스페인의 경제발전과정과 비교해 볼때, 60년 이전의 농업중심 경제구조에서 60년대 공업으로, 80년대 들어 서비스 중심 경제구조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4~1987년에 고용수준은 농업, 공업, 건설업 부문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의 감소는 두드러진다. 한편 1974~1980년 기간 중 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은 낮은 성장율을 보이다, 1980~1987년에는 연평균 3.1%의 높은 성장율을 보인다. 특히 관광과 공공부문에의 고용은 1981~1986 사이에 20%가 증가하게 된다. 1960~1974년의 스페인의 '기적의 경제발전'이라는 시기에도 고용은 연평균 0.9%로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과 대조된다.²²⁾ 1989년의 스페인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EC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농업분야에의 종사하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노동생산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건설업을 포

20) Anuario, *El País* 1991, pp.404~409.

21) Mark Hudson 外, *op.cit* p.28.

22) Mark Hudson 外, *op.cit*, p.26.

합한 공업은 EC 국가와 비슷하며, 서비스부문은 아직은 EC 국가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이 86년 EC에 가입하면서부터 급격히 서비스부문에의 노동력 신장율이 빠르며, 한편으로 농부보다는 웨이터가 되고자 하는 내란 이후의 시대를 풍미했던 진부한 사고방식이 잔존해 있어, 이 부문에서의 노동력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 도표 3 > 스페인: 산업별 인구 구조

(España : Mercado de trabajo según actividad)

구 분	단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농 업	천명	2,041	2,046	1,965	1,926	1,741	1,718	1,669	1,621
공 업	"	2,816	2,750	2,681	2,589	2,632	2,746	2,844	2,942
건 설 업	"	952	930	809	770	827	925	1,048	1,172
서 비 스	"	5,253	5,258	5,213	5,286	5,621	5,966	6,237	6,732
총 계	"	11,061	10,984	10,668	10,571	10,820	11,355	11,798	12,467

Fuente : Bank of Spain, Boletín Estadístico.

스페인의 주요 경제정책중의 하나로 되어 온 임금문제의 경우 1970년대 스페인의 임금인상율은 두자리수를 기록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해 임금상승효과는 상쇄되어 오히려 구매력의 감소를 가져왔다.

정부는 1977년 몽클로아Moncloa 협정에 의해 인플레이 억제율 최우선으로 해오면서 1980년초까지는 임금인상율을 인플레이율보다 낮게 유지해 왔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노조대표와 경제인대표 등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각 직종의 공통 최저임금을 생계비지수, 평균생산성, 기타 경제 정세일반을 감안하여 설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88년 이후에 들어 3자간의 협력체제가 와해되어 노동조합이 더 높은 임금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인플레이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임금인상율은 연 6~7%선이며 시간당 평균임금수준은 87년에 7.82US\$였으며, 88년에는 9.09US\$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리스, 포르투갈과 더불어 EC회원국에서 3대 저임금국으로 분류된다. 이들 남부 저개발 회원국들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고임금 국가와의 일인당 노동비용은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당 노동비용(일인당 노동비용/일인당 부가가치)으로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격차는 크게 감소한다. 이것을 회원국간의 노동

비용의 차이를 갖는 산업으로 비교했을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반도체산업의 단위당 노동비용은 스페인의 반도체산업의 단위당 노동비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80년대초부터 대부분의 선진 EC회원국들은 임금의 상승이 생산성의 증가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노조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는데 반하여, 후진 EC회원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들 국가의 노동비용상승은 선진회원국들에 비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온 사실이다. EC회원국은 노동생산성에서도 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5~1988년 기간의 연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비교하면, 아일랜드가 매년 10%이상의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기록했으며, 반면에 스페인은 그리스와 더불어 1%정도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생산성 향상은 최근까지는 OCDE 평균을 웃돌았다. 1960~1972년 스페인의 생산성은 OCDE의 평균 4.1%와 비교하여 이보다 높은 연평균 5.7%를 기록하였다. 1973~1985년 기간에는 OCDE평균 1.5%, 일본 3.2%, 서독 2.8%보다 높은 3.8%를 기록하면서 OCDE에서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6~1987년에는 연평균 1.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경쟁력의 상실에 기인하고 있다.²³⁾ 그러나 향후 스페인 경제 전반에의 자본투자가 늘고 있고, 공장설비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성은 향상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되는 노동법규, 호전되는 국제환경, 투자, 마케팅 분야의 발전으로 경영실무 능력도 함께 개선되어 질 것이다.

EC회원국에서 20세 이상의 인구중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나라는 벨기에, 영국 뿐이고(단, 서독은 취업 훈련 과정 이수자가 50% 이상)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EC 회원국에서는 일종의 직업학교과정(Formación Profesional)이 설립되어 있어 많은 직업인을 배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90년에 944만명의 학생중 9.1%에 달하는 86만여명이 직업훈련과정을 밟고 있으며, 대학교육중인 자는 11.7%에 달하는 111만 여명이다.²⁴⁾ 한편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놓고 볼 때 스페인은 고졸자가 他 선진 EC회원국보다 높으며, 고등과정수료 혹은 중퇴의 비율도 他 선진 회원국에 비해 높아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질의 노동을 구할 수 있다.

23) Mark Hudson 外, *op.cit*, p.26

24) Anuario EI país, 1991.p.118.

2-6. 산업구조분석

스페인은 1960년대초까지 국제적 고립, 지중해성 기후, 풍부한 농업인구를 배경으로 전통적 농업국이었으나, 60년대에 이루어진 경제개발계획, 무역자유화,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 등에 힘입어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면서 중진 산업국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1986년 EC가입 이후 경제자유화가 보다 촉진되어 EC회원국과의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공업제품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산업구조가 건실화되어 있어 OCDE국가중 제 9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²⁵⁾ 서비스부문의 경우 1975년 프랑코 총통 사후 민주화와 더불어 EC내의 주요 관광지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관광수입이 극대화되어 서비스부문이 급속히 성장, 85년 PIB의 57.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도표 4 > 산업별 PIB 구성 및 비중추이

(단위 : % 및 85, 89 총액은 십억 Pta)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농림수산업	20.5	22.7	16.9	11.9	10.4	7.6	6.9	1,734	5.4	2,235
제조업	31.5	31.5	32.4	32.9	31.8	29.5	28.8	8,561	29.1	12,156
건설업	6.4	5.3	6.4	9.5	9.8	8.6	6.4	1,886	8.9	3,709
서비스업	41.6	40.6	44.3	45.8	48.0	54.5	57.9	16,789	56.6	23,64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970	100.0	41,741

Fuente : OECD Banco Central, Boletín Informativo
EIU, Country Profile Spain 각년호

스페인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지중해성 농업 경작인 올리브, 포도, 밀감류 등과 밀, 과일, 채소, 감자와 같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배에 특화하여 왔다. 이러한 농업 생산구조로 인해 동물성 단백질 소비는 불충분하였다. 1960년대 이래 공업화에 의한 비약적인 경제부흥을 맞으며, 이러한 영양수급에 진보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곧 곡류 및 콩과류의 소비가 줄어든 대신 동물성 단백질, 과일, 채소의 소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수요에의 변화는 농업 생산정책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페인 농촌의 탈자본화, 제한된 기계화, 경작면적의 비적정 규모와 노동력의 초과발생으로 인한 농업위기의

25) 한국무역협회, 남구주제국의 투자환경, 조사 91-03, 1991.1. p.37.

결과였다. 1960~1970년대에는 결국 산업의 발달과 도시 붐(auge urbano)으로 인해 노동력이 농촌분야에서 산업과 서비스부문의 이동을 시작하여 농촌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생산과 고용에 있어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EC역내 선진국에 비하면 스페인 경제에서의 농업부문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페인의 농가규모는 영국의 1/4.5에 해당되는데 EC선진회원국이 될수록 농가규모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 역시 구조적, 기술적 개선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급속한 증가 및 산업지역으로의 확산되는 노동력의 유출에 기인하여 1982년의 5.9H에서 1989년 9.5H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전체 농경지 면적의 규모는 EC의 21.3%를 차지하는 27,110M.H로서, EC회원국중에서 프랑스의 30, 712M.H에 뒤이어 제 2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²⁶⁾ EC역내 농업생산 비중에 있어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4개국이 68% 이상을 점하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산업작물인 사탕무와 해바라기씨, 토마토, 양파, 밀감, 포도, 올리브 등이다. 이들 스페인의 농산물 생산을 EC의 규모에서 보면, EC농산물 생산중 야채와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가입 후 87년 EC 10개국에서의 12.9%에서 EC 12개국에서는 14.8%로 증가했다. 스페인에서의 과일 및 채소의 재배는 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농산물은 EC회원국 규범(Términos de los miembros de Comunidad Europea)에 따르면 올리브 및 올리브유와 함께 10년의 과도기를 가지며, 기타 생산물은 7년의 과도기를 지니게 되어 있다. 와인과 올리브유는 특별규약이 적용된다. 1989년 말까지 4년동안 육류, 곡물류, 밀 등의 수입에 제한정책을 부과할 수 있으며, 1996년에 가서야 스페인은 공동농업정책(PAC)의 정회원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감자, 토마토, 강남콩, 완두콩, 포도, 멜론, 살구 등의 수입에 수량제한, 또는 최저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농산물의 수출에 관해서 EC와 1995년말까지 쿼터를 설정하는 조건을 수락하였으나, 최근들어 폐세타의 강세와 생산비용의 증가로 스페인 농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EC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곡물은 약 10%를 점하고 있으며, 1988년 총 곡물생산은 2,600만톤으로 증가하면서 순 수출물량은 1984년 EC 10개국의 650만톤에서 1988년 EC 12개국이 된 후 1,950만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향후 농산물 공급잉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에 수입 대체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휴경지제도, 조기휴경제도, 조림지원 등

26) Eurostat 1990.

의 광범위한 지원계획 등이 시행되고 있다. EC의 수출 보조금의 대부분도 곡물을 비롯하여 유제품, 쇠고기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중 곡물과 유제품이 각각 30%씩을 점하고 있다. 낙농분야는 EC 농업분야에서 18%를 점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과일생산에 대처하기 위해 1984년 이래로 쿼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러한 축산분야에서는 牧牛 발달을 어렵게하는 기후적 장벽과 목초의 부족, 그리고 사료용 풀재배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발달을 보고 있지 못하다. EC의 육류생산분야 중 총농업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쇠고기와 송아지고기는 EC 육류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떨어질 경우 시장개입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쿼터제 하에서 수입되고 있다. 양고기는 주요 육류 중 유일하게 수입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는 품목인데 자급율은 80% 정도이다. 주로 호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우루과이, 일부 중부유럽국가들로부터 수출자율규제에 의해 무관세로 도입되고 있다. 스페인은 육류수입의 경우 총량쿼터 및 자율규제협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낙농제품은 수입쿼터, 식품의 경우 쿼터, 총량쿼터, 제한승인품목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oilseed의 경우 EC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국이었으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합류로 크게 개선될 것이다. EC는 oilseed를 비롯한 유지와 脂肪분야에 주요 안정화 조치가 되는 역내 최대생산보장량을 책정하며, 스페인은 제한승인품목, 쿼터의 수입규제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설탕은 EC 농산물 생산량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생산과잉으로 자급자족율이 가장 높은 130%에 달한다. 스페인은 일부 설탕과자(regaliz를 사용한)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와인생산은 EC 최종농산물 생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 이태리와 프랑스가 EC전체 생산의 9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역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PAC에 가입하게 되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기타 농산물에 있어서는, 스페인은 에틸 알코올과 식초 그리고 chicory풀과 그 뿌리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천연벌꿀은 제한승인 품목으로 다루고 있다.

스페인은 수산업에 있어서 세계에서 최다 어선(1988년에 약 17,000척)을 보유한 국가중의 하나이며, 예로부터 대서양과 지중해를 접하고 있어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하였다. 1988년말에 EC 어선들은 620만톤의 생선을 잡아들였는데 이는 전세계 어획량의 EC 전체의 27%를 차지하였으며, 스페인은 102만톤으로 EC노회강의 16.4%를, 그리고 PIB의 1%를 점유하고 있다.²⁷⁾ 스페인은 최

27) 한국무역협회 GATT의 EC 무역 정책평가, 조사 91-32, 1991.6. p.136.
Ministerio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1987~1990

다 어선보유국이지만 대부분의 어선이 대양보다는 근해 어획에 적합하며, PIB에서 1%를 점유하지만 국내의 어류에 대한 인기에 비해 국내 공급을 위한 어획량의 부족으로 인해 순어류 수입국으로 남아있다. 주요 스페인의 어업 기지로는 북서지방의 항구, 그리고 Cantábrica연안, 남대서양 연안과 카나리아 군도 등이 있다. 스페인의 EC 가입은 EC 조업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였다. 스페인의 어업은 EC의 공동 어업정책에 완전가입하게 되는 1996년까지는 쿼터제와 EC 해상에서 조업 선박수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대체로 스페인의 어업은 EC 가입으로 이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스페인의 어업선단은 EC 어업분야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감축과 원양어선 현대화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C는 근래 조업선복량을 조절해서 수자원 남획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7년 이래 수개년에 걸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페인에 대해서는 EC 조업규칙내에서는 원양어선 300척이 조업할 수는 있으나 스페인은 생선 수입시 쿼터, 총량 쿼터, 혹은 제한승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의 광업은 산출광물 종류수에 있어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스페인은 서유럽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6위의 광업국으로 발전해 왔다. 스페인은 수은 생산 1위, 황철광 생산 2위, 칼륨 생산 9위, 우라늄 생산 8위를 자랑하며 보오크사이트, 구리, 초산염 같은 기초광물은 入超를 기록하지만 그밖의 7개 생산품에 있어서는 10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국내 생산 현황을 보면 스페인 광업의 60%는 에너지와 관련된 광산물 생산이며 철광업은 12%, 비철금속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1979년 「광물재 공급계획」(plan de abastecimiento de materias primas minerales)을 시행하면서 광물자원개발과 중요한 광물들의 대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였다. 이 계획으로 개발과 광업활동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석·구리·아연·텅스텐·납·철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는 스페인 석탄산업에 있다. 석탄의 생산은 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오고 있다. 지나친 석유에의 의존은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를 석탄으로 대체하고자하나 석탄자원의 문제점은 코르크석탄이나 화력석탄 같은 필수 소비를 위한 자원이 국내 생산에 의해 충당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외국 생산국들과 장기간 수급계획을 맺어왔다. 그러나 스페인은 최근들어 국가에너지계획에 의거하여 석탄증산에 역점을 두고 석탄 채굴업 부문 현대화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내의 주요 석탄 생산지역은 León, Asturia 및 Cataluña 등이다.

스페인 경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에너지 보존자원의 빈약함이다. 이는 기타 EC회원국도 일부 자원을 제외하곤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다. 석유부문에서 생산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뿐이며 기타 EC회원국들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보인다. 원유소비는 1차·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EC 각국이 이태리의 58.9%에 이어 스페인이 54.0%의 높은 의존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73년에 석유구입에 쓰인 비용은 경제활동인구 30만명의 임금과 맞먹는 것이었으며, 1980년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의 7%에 달하는 80만명의 임금수준이었다.²⁸⁾

한편 EC 일부 회원국에서는 석유의 수입, 정제,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점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으며, 스페인은 국영석유전매업체인 CAMPSA와 별도로 독립유통회사를 인정하기로 동의했다. 천연가스는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잉여생산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탄의 경우, 독일만이 생산이 소비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더불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탄생산이 줄어들어 정부개입을 유발시켰다. 즉 세계석탄시장에서의 불리한 가격동향과 석유와 관련되어 하락하는 가격경쟁력으로부터 국내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 구조조정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기위한 여러 정책들이 채택되었다. 국내생산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공급품목의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지역적, 사회적 정책목표로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되었다.

근래에 들어 EC 집행위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는 향후 석탄광산에 대한 보조금과 전기업자를 통한 간접지원금의 규모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EC회원국 모두에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수력 에너지의 경우 대부분 회원국이 생산과 소비수준이 비슷하나, 스페인과 프랑스가 좀더 생산규모가 크며 반면에 이태리와 영국은 소비규모가 더 크다. 스페인의 자원과 에너지 산업을 분석해 보면 빈약한 에너지 자원 보유로 수요의 약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경우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차 석유파동 이후 1979년에 승인된 「국가에너지계획」(PEN ; Plan Energética Nacional)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화력발전 증대를 위한 석탄생산 향상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도모해 오고 있다. 결국 오늘날 스페인의 에너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가 제일 높고 이어 석탄과 수력·핵에너지가 접하고 있다.

PEN계획은 원자력에너지 의존도의 감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력소비량이 부족하여 프랑스, 포르투갈로부터 수입 핵발전소건립을 고려하고 있음을 볼 때(현재 스페인의 전력 구성비는, 수력 27.2%, 화력 53% 그리고 핵발전

28) José Vericat 外, *España hoy*, p.278.

19.8%이다.) 스페인의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어 2005년에는 총 전력에너지 생산의 20%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원유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동년에 42%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1960년대까지 스페인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수준을 보여왔다. 금세기 초에 뒤늦게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과로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에 집중된 섬유 및 철강산업이 발달을 보였고 운수부문에 있어서는 약간의 발달을 보였다. 스페인내란(1936~1939)은 산업발달에 장기적인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승리군의 경제정책은 경제자립정책이었다. 따라서 국영산업공사(el instituto Nacional de Industria: INI)²⁹⁾가 설립되고, 산업을 자생적이며 자금자족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국가 산업보호법안들이 제정되었다. 이같은 보호주의적 국가정책은 서방국가들과의 고립을 심화시키면서, 국내산업을 기술적으로 낙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간 불균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발전모델의 경직성은 50년대 말 한계에 달하면서 정부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어서 1958년 IMF 가입과 세계은행 가입 그리고 1961년 OECD(서어로는 OCDE)에 회원국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유화와 개방 정책을 시도하게끔 되었다. 현실적 변화에 순응하는 정책이 채택되었으며, 수입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유입정책을 펴면서 산업혁신에 강조를 두는 발전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자유화정책은 유럽 경제의 호황과 맞물리면서 60년대 경제적 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철강이나 화학산업 같은 기간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장비제 산업부문에의 새로운 기술 투자와 외국투자의 유입으로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프랑코 독재체제 하의 노동평화 그리고 낮은 임금과 직장이직율의 낮음에도 크게 의존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60년대의 경제 자유화는 충분

29) 오늘날 스페인 산업부문을 리드하고 있는 두개의 국영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INH(el Instituto Nacional de Hidrocarburos: 국영탄화수소공사)이다. INI는 스페인 내전 직후인 1941년 국가주도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간산업보호육성, 중요 산업에 대규모 투자자금 제공, 원료재의 확보등의 사업을 국가예산 및 국채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NI가 직·간접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0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스페인 전체 철강의 33%, 항공부문의 90%, 자동차 50%, 알루미늄 100%, 조선의 90%, 공업용 차량 21%, 석탄 50% 정도, 화학비료 40% 등을 생산하여 공업생산의 약 15%, 수출의 10.2%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163억US\$, 총고용인원 15만명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1989년) 주요 기업으로는 Ensidesa(철강), Iberia(항공), Hunosa(광업), Enasa(자동차), Endesa(전력), Inespal(알루미늄), Casa(항공) 등이 있다. INH는 1981년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산업의 조정을 위해 설립되어진 국영 "holding" 이며 INH는 Repsol 이라는 기업을 통해 Campsa(석유전매), Enpetrol(탄화수소), Butano(가스), Enagás(가스), Alcudia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저리의 풍부한 신용 대부와 낮은 임금은 비용절감을 산출해 내지 못하였고, 한편 에너지의 낮은 가격은 지나친 에너지 소비산업의 과정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70년대에 들어와 대출금리 인상, 원유가 상승 및 임금양등으로 인해 코스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서방측의 경제위기는 국내시장의 이완을 가져오면서, 주요 수출부문인 선박, 철강, 섬유산업에 영향을 미쳤다.³⁰⁾ 특히 철강과 조선분야는 서방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규모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 1977년 이후 스페인 정부가 채택한 통화긴축정책은 신용자금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자기금융이 부족했던 산업분야에선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이러한 산업위기는 전분야에 파급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세에 영향을 받은 철강, 조선, 섬유 부문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전통적으로 적자를 보여온 석탄업과 소규모 금속기계 공업부문도 타격을 받았다. 1980년대말에 스페인정부는 산업위기에의 적극적 대처와 기업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재정구조의 건설화와 산업화 과정의 근대화를 시도하면서 광범위한 산업재편성 프로그램을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편성 계획과 다양한 국가차원의 지원 그리고 유럽체제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의 자생적 노력으로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시멘트, 장비재 및 소비재 생산이 두드러졌으며, 그 중에서도 신발, 섬유, 가전제품, 가구, 식품산업 등이 근래에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영기업의 지나친 비대와 민간산업 자본의 취약이 문제로 드러나면서 전력과 건설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인 INI의 경영합리화, 시설 근대화,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89년 매출액으로 본 세계 100대 기업에 스페인은 국영공사인 INI(금속공업)만이 6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유럽 100대 기업 중 스페인은 2개 기업만이, 즉 INI가 26위, INH의 Repsol이 47위에 랭크되어 있는 실정이다.³¹⁾ 한편 스페인에서 매출액으로 본 200개 기업의 상위 5개 기업을 보면 1위의 Repsol(석유), 2위 Telefónica(전기통신), 3위 EI Corte Inglés(대형백화점), 4위 ENDESA(전력), 5위 Tabacalera(연초도매업)가 랭크되어 있다.

30) Mark Hudson and Stan Rudcenko, *Spain to 1992*, pp.44~45.

70년대초 스페인의 철강, 조선, 섬유, 의류, 가죽 부문의 산업생산("output" industrial)은 전체의 28%를 점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19%, 스웨덴의 15%, 프랑스·독일의 14%에 비교해 볼 때 몇몇 부문의 산업생산 비중이 큼을 알수 있다. 1962년에는 16%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수송장비, 전기기계류, 식료품, 음료, 에너지 분야로 산업기반이 확충되었다.

31) Fortune, 30 de Julio de 1990.

스페인에서의 제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제 EC의 비중과 거의 비슷하다. 즉 국내 총생산에 대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몫은 EC의 26%에 대해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을 포함한 공업부문 고용비율은 EC의 23%에 비해 약 24%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EC 평균보다 생산성면에서 뒤지고 있다. 산업 에너지부(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의 「España en Europa: Un futuro industrial」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스페인의 산업은 저기술사용 생산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수요가 적은 부문들인데 주로 식료품, 조선, 철강, 의류, 비금속 광물, 정유, 코르크와 가죽제품들이다. 스페인은 사무기기, 복잡한 전기기기, 전기통신장비, 정밀기계, 의약품, 항공우주 부문 등 통상의 기술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비교적 취약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고도의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INI 그룹의 Telefónica라는 전기통신 회사의 경우 장비 대부분을 다국적 기업과 합작투자로 생산해내고 있으며, 매출액 상위 20개 회사 중 9개가 외국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 이외에도 스페인은 큰 규모의 기업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중간 규모의 업체들이 취약하다는 점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적 통제가 줄어들고 있고, 국내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합병과 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건설은 보다 많은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EC시장과 협력하면서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1960년대에 세계 주요 철강생산국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오늘날 국영 INI 산하인 Ensidesa, Inespal 그리고 민간업체인 AHV 등의 주요기업이 스페인 전체 철강의 50%를 점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철강 총생산은 EC철강생산의 9.5%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1980년 중반에 들면서 인건비의 상승과 부적절한 재고관리, 협소한 내수시장에 따른 수출의존적 생산체제의 한계, 전통적인 철강수요산업(자동차)에 있어서의 철강소요절감공정, 그리고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생산과 강력한 경쟁력의 후발개도국의 등장으로 인해 생산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C가입 이후는 CECA에 의한 철강생산의 합리화, 현대화 및 구조조정 정책이 실시되면서 스페인 독자적인 정부지원이 곤란해졌으며, 단지 연구개발, 환경보호, 공장 폐쇄를 위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케 되었다.

스페인 정부의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기술도입 정책으로 80년대 후반에 들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도 급성장하고 있다. 설비 가동율이 제조업 중 최고이고 전체 조업생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³²⁾ 이같은 생산호조에도 불구하고 同산업 수요의 급증으로 화학산업 무역수지는 적

자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EC차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노동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C의 화학산업에는 190만의 노동인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총 EC부가가치 중 약 10%를 점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 공공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약품 분야는 전체 화학약품 생산 및 수출의 15%를 점하고 있다. 스페인은 몇몇 화학제품(유기산, 산화물, 할로젠,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목욕용품, 기타 완제품)에 제한 승인품목 및 총량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1960년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70년대 말 이후에 세계 해운업의 불황으로 사양화 추세를 맞아 심각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이는 스페인 뿐만 아니라 EC회원국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선박수요의 감소와 특히 동남아 지역의 새로운 공급국과의 경쟁심화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EC 상선의 생산, 그리고 세계 상선생산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1988년 세계 상선선복량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서 1975~1979년의 점유율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특히 스페인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현저한 시장점유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와 같은 조선산업 불황극복을 위하여 특수선박의 생산으로의 구조적 전환, 파인생산설비 축소조정, 경영합리화 정책 그리고 1994년말까지 유예기간중의 생산지원금정책 등을 통해 침체되어 가는 조선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예로 갈리시아지방에서는 특수목적의 배 및 보트건조로 전환하여 큰 활기를 찾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스페인의 대표적 기간산업 중의 하나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과 더불어 5대 자동차 국가로 성장해 왔다. 스페인에 있어 자동차 산업은 관련 부품산업을 포함하여 보호무역정책으로 SEAT(현재는 Volkswagen과 Audi 합작그룹회사도 독립적으로 활동)로 대표되는 성장을 하여왔다. 승용차의 생산에 있어 스페인은 EC 12개국중 독일,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용 자동차 생산에서도 프랑스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의 다국적 자동차기업들의 강력한 침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급증하는 수요의 증가로 수입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988~1990년 스페인 내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기업별 생산, 판매 및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생산면에 있어서는 Seat-VW-Audi그룹이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GM사가 2위에 올라있다. 판매면에 있어서는 Seat-VW-Audi 그룹, Fasa-Renault, PSA 그룹(Citroén과 Peugeot-

Talbot)이 각각 20%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은 Seat-VW-Audi 그룹을 선두로 GM사 그리고 Seat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서 산업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러므로 EC 각 회원국의 자동차시장은 그들 고유의 기술규격과 EC 전체 통용모델에 관한 승인제도 결여로 통일성없이 분할되어 오고 있다. 현재 각 회원국은 다양한 국경 보호조치와 국내정책 그리고 우회수입을 막기 위한 별도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EC의 일본차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협정, 사후감시절차 등이 있다. 1990년 스페인은 일본차의 간접수입이 5,142대에서 7,800대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차의 간접수입 상한성을 500대에서 600대까지로 상향조정했다. EC자동차산업은 아직껏 기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국간 역내 자동차 수출입이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자동차 공동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對EC수출구조, 스페인의 투자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전기·전자산업부문은 가장 유망한 투자부문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연간 수요증가율 약 10.6%, 생산증가율 약 19.1%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1988년말 현재 전자회사수는 약 140여개로 총고용자수는 5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³³⁾ 주요회사로는 미국의 AT & T, 일본의 Fujitsu, Grundig, H/P, INI그룹, Standard Electric 등이 있다.

TV업체에서는 단연 Philips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 유일의 TV제조업체인 ELBE社가 2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VTR에서는 SONY, SANYO, Panasonic 등 일본계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있다. 전자제품수요를 항목별로 보면 전자계산기에서 가장 큰 신장율을 보이면서 산업용기기의 성장이 제어측정장비, 의료, 통신, 전기기기 부문의 신장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가정용기기의 성장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반면에 전자부품 수요는 최근들어 7%정도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생산면에서 보면 스페인의 전자제품 생산은 시장수요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업용, 가정용기기 그리고 부품 생산의 성장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수출입 동향을 분석해보면 수출은 생산규모나 시장수요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수입은 증가율은 낮은 편이나 수출액의 3배정도 규모여서 전자부문의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주요품목별 시장현황을 보면 컬러TV의 경우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전자업체가 거의 모두 진출하여 치열한 시장점유경쟁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대부분은 EC시장

33) 한국무역협회, 남구주제국의 투자환경, 조사 91-03, 1991. 1., p.42

의 전략적 목적으로 현지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EC가입후 수입물량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우회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의 삼성 현지 공장을 통하여 쿼터 초과분을 수출하고 있다. VTR의 경우 1981년경까지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82년도 스페인의 월드컵을 계기로 급신장율을 기록한다. 여기에 스페인 정부는 이른바 PEIN(Plan Electrónica E Infomación Nacional)이라는 「전자정보산업계획」을 수립하여 VTR의 수입대체에 노력하고 있다. PEIN에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이거나 합작법인업체들도 참가하여 생산증대와 수출, 수입기술의존도 축소, 현지기업과 다국적기업간의 협력체제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산업중의 하나가 섬유산업이다. EC역내 섬유산업국인 이태리, 독일, 그리스와 더불어 역내 섬유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섬유류와 의류산업은 EC내 생산구조의 지역차가 가장 현저한 분야이며 EC내의 총제조업 고용인구의 9%가 同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율은 네덜란드의 4%부터 그리스, 포르투갈의 29%까지 다양하다.(1986) 이러한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와, 보다 노동집약적인 의류산업과 섬유류 산업간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섬유류생산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의류생산은 하향추세에 있다. 對EC 섬유류와 의류의 주요공급국으로는 1988년 기준으로 다국간 섬유협정(MFA)조인국들이 46%, 지중해 국가 22.5%, EFTA국가 14%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홍콩이 10.5%를 EC로 공급함으로써 가장 주요한 공급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6%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중해 연안국(터키, 유고 등)들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EC는 섬유류와 의류에 대한 국가지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반면에 스페인은 업종전환이나 시설용량 감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철도부문은 스페인이 얼마나 유럽의 일원이기를 갈구하는가를 가장 잘 인식시켜주고 있다. 스페인은 철도의 근대화를 통해 국가의 동맥을 잇는 교통을 정비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estructura)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스페인 정부는 1992년까지 일본의 新幹線, 프랑스의 특별 고속열차(TGV)에 맞먹는 초특급열차(TAV)건설 방침을 1986년에 결정했다. 이 노선은 수도 마드리드와 국제박람회 장소인 세비야 간을 연결하게 되어있다. TAV 수주를 위해 일본의 新幹線과 세계 제일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TGV, 그리고 서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일본은 스페인 지형에 맞는 즉, 기복이 다양한 지역에 철도를 건설해 본 국내 경험과 프랑스, 서독측의 공비보다 30%정도 싼가격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나, 곧 이어 프랑스 측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철도를 구입하게 되면 스페인과는 단절

이다.」이라든가 「프랑스에 피신해 있는 ETA(바스크 독립운동의 급선봉)의 체포에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의 TVG와 서독의 Siemens가 공동수주하게 되었다.³⁴⁾ 이같은 결정은 스페인이 EC의 일원으로서 EC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본다. 스페인은 TAV건설로 전장 13,000km에 달하는 철도망의 선로폭이 타유럽국가들의 폭보다 넓기 때문에 선로의 路盤이 약해 있어 이의 정비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1980년 전반기의 건설업은 투자와 더불어 가장 침체를 맞이한 분야이다. 1986년과 1987년에 민간 주택건설과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살아났다. 1987년에는 PIB와 고용의 각각 8%를 점하였다.³⁵⁾ 증가하는 가구 소득과 장차 자유화될 임대제도는 개인 주거지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지중해 해안을 낀 지역에서 별장에 대한 수요 역시 건설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 주택건설은 다양한 계층과 지역으로부터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정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PIB 성장율보다 높은 성장세가 사회 간접자본 부문 및 관광과 오락을 위한 서비스 건설분야에서 기록될 것이다. 사회 간접자본의 경우 전 국토에서 도로 및 철도 건설에 정부의 지원정책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EC 원조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관광과 식당업의 건설 역시 원만하게 성장되어 가고 있다. Catalán 해안을 따라서 관광을 위한 부대시설이 93년까지 현대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남지중해 연안에서 새로운 관광시설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소매업 서비스 붐으로 인한 가게와 창고, 슈퍼마켓의 보다 많은 건설 수요가 이루어진다. 결국 산업 전반의 고무적 전망과 더불어 건설분야는 크게 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들어 1992년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년의 세비야 국제박람회, 마드리드-세비야간 고속전철(TAV)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힘입어 89년에는 15%의 성장율을 보였으며, 향후 수년간 스페인 경제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1993년 이후에도 도로, 철도 등 수송부문 사회 간접자본 정비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공공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00년까지 계속적인 호황이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의 서비스 산업은 60년대에 자유화정책과 뛰어난 자연자원 그리고 유럽의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관광이 주요 외화획득 원천으로 변모하면서 크게 발달하다가 1975년 Franco 사후 민주화에 힘입어 전반적인 분야에도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왔다. 1960~1970년대 초반의 급속한 공업발전 가운데서도

34) 스페인은 이마, pp.131~133.

35) Mark Hudson 外, op.cit, p.96.

서비스 부문은 PIB와 고용면에서 가장 큰 경제부문으로 성장하였다. 1960~1970년 사이에 서비스 부문은 PIB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1%에서 49%로 증가시키면서 해마다 6.9%의 평균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관광산업에서 얻어지는 외화는 곧 공업드라이브정책을 위한 수입의 상당부문을 커버해 줄 수 있었다. 1975~1985년까지 경제의 대부분이 정체해 있는 동안에도 서비스부문은 관광산업의 팽창과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로 해마다 2.5%의 평균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5~1989년의 최근에는 연평균 9.3%의 성장율과 PIB의 52%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보험 부문이 금융자유화와 사회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배경으로 급신장세를 지속하면서 PIB의 7% 이상을 점유해 오고 있다.³⁶⁾ 이 외에도 레스토랑 및 호텔, 공공서비스 차원하의 교육과 건강이 점차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주요 외화획득원의 하나로써 무역수지적자를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교역구조항의 국제 수지표 참조), 90년 관광객수가 약 5,200만명에 달하면서 관광수입이 1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³⁷⁾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발달은 스페인 동부 지중해의 Baleares섬과 연안지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왔다. 처음에는 금융, 보험 서비스 분야와 교통, 통신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부문 발달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다음에는 신선한 야채와 우유를 공급하는 시장지향성농업이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숙박업에 대한 건설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태리 다음의 큰 관광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상당부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전체 관광객 수의 41.8%에 상당) 들어오고 있으며 이외에 평균 체류기간이 긴 독일과 영국 그리고 북구라파가 37%상당을 점유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EC가입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은행간 합병이(Banco de Bilbao와 Banco de Vizcaya의 합병이 예)이루어 지면서 금융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의 금융계는 90년 현재 7개 그룹은행(Grupo Bilbao-Vizcaya, Central, Banesto, Hispano, Santander, Popular, Exterior)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그외에 68개의(87년의 78개) 저축은행(cajas de Ahorro)이 있다. 스페인 국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외국은행은 Manufact. Hanover T. Com(미국 상업은행으로서 세계 랭킹 83위), Crédit Lyonnais(프랑스은행, 세계 12위), Morgan Guaranty TC of N. York, Citibank NA(미국, 세계 10위), Bank of America(미국, 45위) 등이 있으며, 스페인의 가장 큰 은행인 Grupo Bilbao-Vizcaya는 세계 랭킹 70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업은 계속되는 전

36) Ibid, pp.50-51 Anuario *El País* 1991, pp.354-355 & p.362.

37) Secretaría General de Turismo.

문직 연구의 수요와 외국의 투자에 의해 활기를 찾고 있으며, 소매업은 양대 체인 즉 EI Corte Inglés와 Galerías Preciados으로 대표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15개 상장회사가 1987년의 경우 총주식거래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Telefónica(10.9%)와 Endesa(7.5%)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금융주는 37%. 전기계열사 22% 그리고 제조업이 13%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4대 주식시장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빌바오, 발렌시아이다. 결국 스페인의 주요산업인 서비스분야는 EC가입과 더불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는 EC의「시민을 위한 유럽」구상과 더불어 스페인은 여타 역내 관광국보다 더 큰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기회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고유의 다양한 문화를 지닌 EC는 매년 12개 회원국 도시중의 하나를 선별하여 「그 해의 유럽 문화도시」(Capital Europea de la Cultura)로 선정한다. 그 도시는 회원국의 관광객에게 음악회, 연극 등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페스티벌」을 거행한다. 「1992년 유럽문화도시」로 EC집행 위원회 문화 각료회의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선정해 놓고 있다. 1992년은 마드리드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개최 및 세비야의 국제 박람회 등이 콜롬부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이하여 관광 산업국으로서의 더욱 큰 면모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스페인이 이미 채소와 과일 분야에서 유럽의 캘리포니아가 된 것처럼, 스페인은 유럽대륙의 플로리다이며 관광과 휴양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관광분야 외에도 광고, 부동산 중개업, 조사업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들 역시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호황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광분야에서 영국과 독일의 대규모 종합 관광 알선업자의 이익이 증대할 것처럼, 슈퍼마켓, 대규모 소매업, 대형 규모의 은행 등과 같은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가 특히 증가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율은 매년 약 3.7%로 예상됨에 따라 PIB의 성장율을 능가할 것으로 보이며, PIB에 대한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는 1987년의 57%에서 1992년에는 5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³⁸⁾

2-7. 교역구조

1992년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C시장 단일화는 역내 시장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동구권의 개방, EFTA제국의 EC가입 움직임에 따른 하나의 유럽경제권형성 가속화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1992년 EC가 단일시장화 될 경우 PNB 규모가 세계 총 PNB의 23%(미국 24%, 일본 13%) 정도를 점유하게 되며, 1990년에 세계 총수출의 39.2% 그리고 세

38) Mark Hudson 外, *op.cit.*, pp.99-100

계 총수입의 39.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 도표 5 > EC회원국별 교역가, PIB%, 1인당 수출입가

■ COMERCIO EXTERIOR 1989

Países	Importaciones(수입)			Exportaciones(수출)			Saldo Mill.de Ecus (수출-수입)
	Milliones	1.000 Ecus		Milliones	1.000 Ecus		
	de	%	por	de	%	por	
	Ecus (백만에쿠스)	PIB	habitante (1인당 단위 천에쿠스)	Ecus	PIB	habitante	
Alemania, Rf	244.679	22.7	3.9	308.682	28.6	4.9	64.003
Bélgica-Lux	93.008	64.1	—	90.851	62.7	9.1	-2.157
Dinamarca	24.723	26.0	4.9	25.842	27.3	5.2	1.119
España	61.599	17.9	1.6	42.265	12.3	1.1	-19.334
Francia	182.861	21.0	3.2	167.994	19.3	3.0	-14.867
Grecia	14.683	30.0	1.5	6.883	14.0	0.7	-7.800
Holanda	101.550	50.0	6.8	105.090	51.8	7.1	3.540
Italia	15.487	17.7	2.4	127.799	16.3	2.2	-11.164
Luxemburgo	—	—	—	—	—	—	—
Portugal	17.145	41.8	1.7	11.498	28.0	1.1	-5.647
Reino Unido	178.654	23.5	3.1	137.632	18.1	2.4	-41.022
EUROPA 12(extra)	446.716	10.1	1.9	413.010	9.4	13.0	-33.706
EUROPA 12	1.073.552	24.4	3.3	1.043.289	23.7	3.2	-30.263
Austria	35.308	30.7	4.6	29.451	25.6	3.9	-5.857
Finlandia	22.326	21.3	4.6	21.131	20.1	4.3	-1.195
Noruega	21.313	25.8	5.1	24.431	29.6	5.8	3.118
Suecia	44.527	25.9	5.2	46.827	27.2	5.5	2.300
Suiza	52.824	32.8	8.1	46.754	29.0	7.2	-6.070
Turquía	14.306	19.9	0.3	10.553	14.7	0.2	-3.753
Canada	103.599	20.9	4.0	105.469	21.2	4.1	1.870
EE UU	429.577	9.2	1.7	330.171	7.1	1.3	-99.506
Japón	191.320	7.5	1.6	249.817	9.8	2.0	58.497
URSS	103.970		0.4	99.126		0.3	-4.844

Fuente : Eurostat

EC회원국에서 독일은 1990년 세계 총수출가에서 12.1%를 차지하면서 EC 뿐만 아니라 미국(11.4%)을 제치고 세계 제 1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스페인

은 세계 17위(점유비율 1.6%)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총수입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14.3%로 선두이고 독일이 9.9%로 세계 2위, EC회원국중 1위의 수입국이 되었으며, 스페인은 2.4%로 세계 11위의 수입국으로 랭크되어 있다. 1인당 수입가를 보면 네덜란드가 역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스페인은 그리스와 더불어 역내 최저의 1인당 수입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PIB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64.1%로 제일 크고,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17.9% 내외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 1인당 수출가의 경우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제일 높고 스페인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과 EC와의 교역구조를 보면 스페인은 총수출의 EC비중이 88년의 65.6%, 89년의 66.8%에서 90년에는 69.3%로 점차 증가하면서 EC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타국과의 비중의 감소를 상쇄한다. 수입의 경우 스페인은 EC비중이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90년에 對EC 수입비중이 59.5%에 달하고 있다. 역내 교역국중에서 스페인은 그리스와 포르투갈과의 교역에서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회원국과는 적자, 특히 아일랜드와의 교역조건이 큰 폭의 入超현상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국별 교역구조를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가 對EC 수출의 71.4%를 점유하면서 주요교역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수입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對EC 수입의 81.4%를 차지하는 주요 대상국이다.

지속적인 무역수지적자는 무역수지인 관광수입으로 상당부분 보전하고 있고, 기초수지는 경상수지적자를 스페인 경제의 순조로운 성장과 EC가입 등에 따라 직접투자 등 민간부문의 장기자본유입의 증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보유고는 90년말에 5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우선 무역수지의 균형은 당분간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80년대 상반기까지는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부문의 적자감소에 기인하여 무역수지를 꾸준히 개선시켰으며, 이후에는 EC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의 인플레이 격차축소, 코스트 절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 수출선 다별화에 기인하면서 90년중 수출은 무려 전반비 25.1% (89년 수출은 전년비 10.1% 증가) 증가하였다. 수입은 수출의 성장율을 뛰어넘으며 무역수지를 적자로 이끄는 주원인을 제공한다. 수입은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내수확대, 외국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기계 설비류의 수입증가, 對EC 관세인하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0년 중 전년비 23%(89년 수입은 전년비 18%)가 증가하였는데 스페인의 무역의존도는 38%이다.

< 도표 6 > 스페인 국제 수지표(1988~1989)

■ Balanza de pagos de España 1988 y 1989

Conceptos(항목)	Milliones de dólares					
	1988			1989		
	Ingresos (소득)	Pagos (지출)	SalDOS (증감)	Ingresos	Pagos	SalDOS
1. Importación(FOB)(수입)		57.161	-57.161		67.787	-67.787
2. Exportación(FOB)(수출)	39.302		39.302	43.228		43.228
3. Balanza comercial(2-1) (무역수지)	39.302	57.161	-17.859	43.228	67.787	-24.559
4. Fletes, transportes y seguros (수송, 보험)	4.905	3.991	914	5.271	4.459	812
5. Turismo y viajes(관광여행)	16.689	2.457	14.232	16.255	3.081	13.174
6. Rentas de inversión (해외투자수익)	2.590	6.003	-3.413	3.547	6.524	-2.977
Privadas(민간)	839	5.344	-4.504	944	5.380	-4.436
Públicas(정부)	1.751	659	1.092	2.603	1.144	1.459
7. Asistencia técnica(기술사용료)	162	819	-657	261	1.010	-749
8. Otros servicios y rentas(기타)	3.267	4.554	-1.287	3.579	4.832	-1.253
9. Total servicios(4 a 8) (무역외수지)	27.613	17.824	9.789	28.913	19.906	9.007
10. Transferencias(이전수지)	7.341	3.021	4.320	8.541	3.932	4.609
Privadas(민간)	3.923	907	3.016	4.351	1.190	3.161
Públicas(정부)	3.418	2.114	1.304	4.190	2.742	1.448
11. Balanza corriente(3+9+10) (경상수지)	74.256	78.006	-3.750	80.682	91.625	-10.943
12. Capital a large plazo (장기자본수지)	33.055	22.342	10.713	44.762	27.324	17.438
Sector privado	28.335	17.725	10.610	32.360	18.244	14.116
Sector público	1.911	3.033	-1.122	10.280	7.945	2.335
Sector bancario	2.809	1.584	1.225	2.122	1.135	987
13. Balanza básica(11+12) (기초수지)	107.311	100.348	6.963	125.444	118.949	6.495
14. Capital a corto plazo (단기자본수지)	11.807	10.947	860	18.065	18.939	-874
Sector privado	941	879	62	701	2.405	-1.704
Sector público	3.446	2.750	696	7.289	7.095	194
Sector bancario	7.420	7.318	102	10.075	9.439	36
15. Variación de reservas (외환변동)		9.703	-9.703		4.546	-4.546
16. Variación Pasivos Iiq. frente al ext.	1.062		1.062	1.009		1.009
17. Total mov. montarios Iiq. frente al ext.		8.641	-8.641		3.537	-3.537
18. Posición en divisas de banca delegada	123.300	2.556		2.556	1.038	1.038
19. SalDOS en divisas mantenidos por resid		57	-57		150	-150
20. Errores y omisiones (13+14+17+18) (오차 및 누락 제산된 종합수지)		1.681	-1.681		2.954	-2.954

Fuente : Secretaría de Estado de Comercio

무역외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여 왔는데 이는 관광수입의 결과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광수입 신장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peseta화의 절상, 관광객 수용한계 및 소득향상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해외여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전수지는 해외거주 스페인인들의 본국 송금(1987년 경우 약 15억\$)으로 인해 호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근무 근로자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역시 감소하게 되리라 본다. 반면 스페인내의 외국인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해외로의 유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EC가입 이후 공공부문의 이전수지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전수지 항목도 낙관적으로 본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원인은 해외투자수익(Renta de Inversiones)과 로열티 지불에 있다. 즉 스페인은 외채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다국적기업들의 모회사로의 이익송금, 외국기술도입의 비용 등이 이유이다. 그러나 외국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는 EC가입으로 인한 스페인의 신용도향상에 의해 더욱 호전될 것이다. 스페인의 경제적 기적은 바로 외국투자가 유입되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산업에 있어 자동차분야의 발달과 관광 그리고 해외 이민자들의 송금으로 가능해졌던 것이다.

스페인의 지역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총수출중 對EC 수출비율은 86년의 60.5%에서 89년 66.8%, 90년 69.3%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는 반면, 대미, 아시아의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총수입중 對EC 수입비율 역시 86년의 50.5%에서 89년 57.1%, 90년 59.5%로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對미·아시아의 비중은 역시 감소하고 있다.

스페인과 역내 회원국간의 교역비율은 앞서 설명한 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주요수출대상국이며, 주요수입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다. 93년 1월 1일부터 EC와 스페인간의 관세철폐를 합의한 바 있지만, EC는 스페인 수출에 대해서 89년 7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여, 스페인의 對EC 및 EFTA로의 수출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1990년 수출의 경우 총수출에서 수송기계류가 23.4%를 점유하여 가장 큰 수출품목이 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수출에 기인한 것이며, 이외에도 일반기계류(원자로 및 전기기계류가 큰 비중을 차지) 및 농산물의 수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입은 전체수입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24.8%로 가장 높고, 이외에 수송기계, 화학제품, 에너지, 농산물의 수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수출품목은 자동차·트랙터·핵원자로 및 공작기계, 기계 및 전기기기, 연료 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 핵원자로 및 공작기계, 연료, 자동차, 기계 및 전기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 스페인은 전형적인 농산물 수출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국으로 변모한 지

금, 수출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비중은 앞으로도 핵심수출 성장의 분야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발달해 있는 과일과 야채의 수출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간제품들 즉 화학제품, 석유정제품 및 기초금속제품(특히 철강)의 수출성장은 저조할 것이다. 의류 및 섬유수출은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다. 한편 스페인은 역사적 관계로 인하여 중남미에 공공사업부문 수행과 건축 그리고 산업플랜트 수주에 있어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입은 90%가량이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핵원자로 및 공작기계, 기계류 및 전기기기 그리고 연료의 수입이 크게 두드러진다. 이 부분들은 수출가의 3배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연료는 항상 스페인 경제성장에서 주요인자로 여겨 왔다. 향후 하이테크 제품 - 컴퓨터, 정교한 공장기계류, 하이-파이 비디오, 고가의 차 - 의 수입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들 제품의 수입은 주로 스페인이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올 것이다. 한편 그런대로 스페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소형차의 브래킷, 일반기계류, 제지와 플라스틱)에서는 그다지 수요가 증가할 것 같지 않다. 스페인의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는 분야와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즉 화학제품 같은 중간재, 광물, 여러 농산물(과일, 채소 양질의 포도주 제외)과 가전제품분야, 섬유 및 의류, 신발 등에서는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의 대외무역은 주로 유럽계, 미국계, 혹은 일본계 현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의 100대 수출 기업중 상위 10대 기업에서 스페인 기업은 Seat와 INH 그룹계열인 Repsol 그리고 ECPSA정도이다. 상위 10대 수입회사에서는 반면에 5개가 스페인 기업이다. 상위 10대 수출업체중 5개가 자동차산업체이며 그외 석유업체가 셋이다. 88년 상위 100대 수입업체의 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이며, 89년상위 100대 수출업체가 전체 수출의 39.8%(상위 10대 수출업체의 수출은 23.5%)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수출입 업체의 대다수는 무역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들인데 원자재, 부품 및 부속품 등을 수입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독립 수입상들은 대체로 영세 규모여서 활동영역이 좁고 전국적인 규모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가끔 중간규모의 수입회사가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물, 스포츠화, 기계류 등 전문품목만 취급한다.

2-8. 지역개발

EC회원국내의 지역 불균형은 교통·통신망의 발전정도,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여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교육시설, 기타 사회간접자본 투자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1975년 이후 EC는 유럽지역발전기금(Fondo Europeo

de Desarrollo Regional : FEDR)과 유럽사회기금(Fondo Social Europeo: FSE) 및 농업발전보증기금(Fondo Europeo de Orientación y Garantía Agrícola: FEOGA)이라는 공동체의 구조기금을 설치하고 역내의 저개발 지역이나 사양산업 지역내의 기간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도 회원국간의 균형발전과 실업인구의 이동방지를 위한 EC지역개발자금을 역내 저개발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C집행위에 의해 지원된 EC지역개발자금의 국별할당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표 7 > EC지역개발자금의 국별할당내역(1989-1990)

(천ECU, ×)

	1990		
	1989	금액	비중
벨기에	40, 455	48, 672	0.9
덴마크	22, 475	27, 040	0.5
서독	130, 355	156, 832	2.9
그리스	427, 025	513, 760	9.5
스페인	840, 565	1, 011, 296	18.7
프랑스	391, 065	470, 496	8.7
아일랜드	197, 780	237, 952	4.4
이탈리아	1, 132, 740	1, 362, 816	25.2
네덜란드	31, 465	611, 104	0.7
포르투갈	507, 935	935, 584	11.3
영국	777, 635	973	17.3
점경지역	809	5, 408, 000	0.0
합계	4, 495, 000	100.0	

Fuente :European Report 1990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의 상당부분이 이태리,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등에 분배되고 있다. 90년대에 EC내에서 투자에 따른 산업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지역은 영국의 런던을 시작으로 베네룩스국가와 독일의 라인강을 거쳐 이태리의 밀라노에 이르는 소위 “푸른 바나나 지역(Blue Banana)”과 이태리의 토스카나를 시작으로 밀라노와 프랑스의 리옹을 거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발레시아에 이르는 “태양의 띠(Sun Belt)”라 불리는 지역이 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스페인 북부는 경제성장이나 기타 투자환경조건은 크게 발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차원에서 지역적경제인센티브(Dirección General de Incentivos Económicos Regionales)이 총괄하

여 개발낙후지역의 사회간접자본정비와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조정하고 있다. 1988년 스페인 정부와 EC와의 협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EC기준에 일치하였다. 여기에는 전지역을 1인당 소득수준과 실업율에 따라 4개의 경제촉진지역(ZPES)으로 선정하고 또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4개 지역을 산업낙후지역(ZIDS)으로 지정하여 현금보조, 은행대출금의 이자보조, 은행대출금 상환보조, 신설업체의 경우 2년 동안 사회보장비 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계획 이외에도 모든 자치지역은 독립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89년부터 93년까지 5년간 총 8조 2백억 Pts를 지역개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1조 7600억 Pts는 EC의 각종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용도별 투자배분은 기간산업의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로, 수리사업, 철도, 농업간접시설, 항만, 공항,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주력하고 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자국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고관세장벽, 총량쿼터제 등 각종 수입 수입규제를 행하여 유럽 국가들 중에서 수입정책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80년부터 EC가입 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왔고, EC가입 후 관세율인하조치를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93년에는 대외 통상정책을 CEE통상정책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공산품의 관세는 86년 3월 1일부터 7년간의 경과조치가 있어 93년부터 EC역내국가에는 무관세, EC역외국에는 EC공동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농산품 관세는 현행 관세율이 EC공동관세보다 높은 경우 현행 스페인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과일, 야채는 7년에 걸쳐, 식품성 지방 식품은 10년 걸쳐 EC공동관세수준에 일치시킬 계획이다. 수산물 관세는 점차 스페인의 기준관세와 EC공동관세와의 차를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에 스페인의 쿼터제도는 국별 쿼터량을 정하지 않고 국가 그룹별 전체 쿼터량만 정해 놓고 있으며, 수입상별 쿼터배정은 수입경험, 최근 3년간의 수입실적, 건설도, 업종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비관세장벽인 EC수입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입상품을 자유화품목(무기화학물, 섬유, 기계 등의 공업용 원자재 및 자본재 등), 수입감시품목(완구 및 인형, 목재 및 동제품, 진주류, 귀석 및 반석석류), 수입허가품목(의류 등 섬유류, 타이어 및 튜브, 비디오 제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업규격 및 안전도 기준을 공업제품 및 소비재 전자제품에 적용시키고 있어 수입규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 스페인은 EC가 실시해온 개별특혜관세제도를 EFTA국가, 로마협정의 ACP국가, 지중해 국가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GSP(일반특혜관세)는 93년 이후에야 실현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관세율 인하조치에 따른 수입급증과 경기호황에 따른 내수확대 등으로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나 관세인하 조치는 향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시설재 수입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지만 섬유·의류 등 소비제품의 수입증가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인 수출촉진 및 장려를 위하여 82년도에 수출 진흥기관인 INFE (Instituto Nacional del Fomento de la Exportación)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출관계업무는 상무부 산하의 수출총국(Dirección General de Exportación)이 담당하고 있다. 수출 인센티브 제도로는 금융기관(주로 스페인 외환은행 및 수출 신용보험회사)을 통한 수출신용제공이 있으며, 그밖에 라틴 아메리카로 수출할 경우 정부의 개발원조기금(FAD)을 이용하여 저리의 이자율과 장기상환을 조건으로 대부받게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재 수입이나 국내 생산된 부품을 사용할 경우 관세면제 및 유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불거래, 구상무역, 삼각무역형태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고, 수출제품제조를 위한 원료구입시 지불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등 수출진흥을 위한 금융·관세·재정면에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2-9. 투자

60년대에 시작한 산업근대화정책에 힘입어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술이전과 산업현대화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외국자본은 주로 60년대에는 화학산업에 투자되었으며, 70년 대에는 수송분야, 그리고 80년대에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에 의해 자본이 자동차·전기·타이어·제약·정보·사무기기·향수·화학·플라스틱·광고 등을 비롯하여 식료·음료·은행·관광분야에까지 투입되었다. 반면에 스페인은 시멘트·제과·건설·제지·인쇄·야금술·석유·신발·의류·가구산업을 주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스페인은 30여년 동안 외적요인, 특히 외국자본 투자에 의해 발전을 해왔다. 82년 이후에는 사회 노동당정권이 출범했지만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는 등 안정화정책을 펴고 있어 투자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86년 이후 이러한 투자유입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86년 EC 가입과 국민투표에 의한 잔류결정으로 사회노동당의 선거공약 준수이행에 따른 국민과 외부의 신용고무와 89년 EMS(구주 통화제도) 가입 등으로 유럽국가의 일원임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82년 사회노동당 출범이래 정치적 안정 확보, 셋째, 86년 외국 투자법개정으로 對스페인 투자 자유화와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네째, 여타 EC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으로 성장 잠재성이 엿보이며, 다섯째, EC시장 통합을 앞두고 역내 기업은 업계재편, 남

구주 지역에서 사업의 전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역의 기업은 Insider와를 위해 역내 거점확보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외국인 투자에 가장 큰 매력이 되고 있는 86년 6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외자비율 50%이하 직접투자의 자유화 ② 외자비율 50%를 초과하는 직접투자 및 지사의 설치에 신고와 정부의 확인만으로 가능 ③ 투자원금·이익·배당 등의 송금자유 ④ 증권투자, 부동산 투자의 자유 ⑤ 예외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국방관련 분야, TV방송, 라디오방송, 항공수송, 도박 등이다.

對스페인 외국직접투자는 86년 EC가입 직후부터 급증(85년 2,800억 pts에서 86년 4,000억 pts로 전년대비 43%증가)하여 90년의 직접투자액은 1조 8,300억 pts로 전년대비 47%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다.

對스페인 외국직접투자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네덜란드가 전체 투자규모의 45.7%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큰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의 투자규모는 투자액과 점유율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은 투자액은 급증했으나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는 면을 보인다. 對스페인 직접투자를 부문별로 보면 92년을 앞두고 외국계 기업의 증가, M&A를 포함한 신규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주로 금융·보험·리스·증권·부동산 분야에의 투자가 46.5%를 차지하는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경공업 및 화학정밀 기계분야가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건설분야에서의 높은 투자 신장율이 돋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대외투자의 대부분은 직접투자인데 이는 가장 자유화된 형태의 투자였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투자액과 규모와 점유율에서 금융·보험·기업서비스·부동산 분야가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제조업이 큰규모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수송과 통신 분야는 점유율은 낮으나 근래 들어 큰 투자규모액을 보이고 있다. 국별 대외투자에서는 90년 기준으로 영국(전년대비 투자액이 무려 324%나 증가), 포르투갈(전년대비 투자액이 29%가량 감소), 네덜란드가 중요 투자 대상국이었으며, EC지역으로의 투자가 전체 투자의 52.8%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남미 쪽으로 투자규모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IV. 結 論

세계는 이제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누구나 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구별되게 되는 독특한 게임이다. 19C의 영국, 20C의 미국

중심경제에서 EC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구성을 목표로 21C를 준비하고 있다. 즉 EC는 21C의 시작을 8년 앞당긴 1993년 1월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 스페인은 오랜 세월동안의 유럽과의 단절의 역사를 유럽과 동반의 시대로 전환시키면서 깨어나고 있다. 프랑코 사후 민주화에 박차를 가해 86년 EC에 첫 가입신청서를 낸지 25년만에 가입하면서 문호개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스페인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주역량,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를 위한 정책, 국내시장규모의 양호, 풍부하고 질 좋은 노동력확보, 역대 회원국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Infra에의 투자촉진, 유통도시 바르셀로나의 존재, 역대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의 호조건을 내세워 자국의 오랫동안의 문제인 실업, 인플레이,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또한 자국기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내년 EC 단일시장 출범을 앞둔 1992년은 바르셀로나가 올림픽 개최지로 세비야가 국제박람회의 축제도시로 그리고 수도 마드리드가 유럽 문화의 수도로 선정되어 그들이 500년전 대서양을 넘나들었던 진취성과 국민적 자존심 회복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1964년 동경 올림픽과 70년의 오사카 국제박람회를 통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점이나, 한국이 1988년 올림픽으로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여 크게 대외이미지를 개선한 점등이 스페인인들을 깨워 그들의 과거 대명사로 불리웠던 “Hasta mañana”(내일 합시다)를 그들의 머리에서 지워나가고 있으며, 투우와 플라멩코 그리고 태양의 정열을 경제발전에 접목시키어 스페인을 현대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계속적인 Booming-up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스페인의 미래가 장미빛만은 아니다. 내적으로는 두개의 스페인—도시의 유럽지향적이고 기업가적 의욕이 넘치는 스페인이 그 하나요,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는 농촌 지역의 내향적 스페인이 또 하나다—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EC의 새 환경, 보건 안전기준에 따르기 위한 비용부담, EC의 통일된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유럽사회헌장안 체결시 스페인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최근 동구의 몰락으로 EC 자금의 상당부분이 폴란드, 헝가리 등으로 방향전환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EC와 중남미, EC와 북아프리카의 가교역할이라는 중추적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외적문제가 산재해 있으나 그다지 큰 어려움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정세변화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줄 아는 그들이기에 더

이상 피레네산맥 이남이 아닌 유럽의 중심으로 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Mark Hudson and Stan Rudcenko, *Spain to 1992*, Special Rep, No. 1138, EIU, 1988.
- Juan Velardo Fuertes, *Lecturas de Economía Española*, Madrid, Edit. Gredos, 1969.
- Lieberman, Sima, *The Contemporary Spanish Economy: a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George Allen & Vowin, 1982
- Romón Tamames, *El Mercado Común Europeo*, Madrid, Alianza Editorial, 1982
- EI Anuario EI país 1986, 1988, 1990, 1991년판
- Ramón Tamames, *Estructura Económica Interancional*, Madrid, Alianza Editorial, 1982
- José Vericat 外, *España hoy*, Secretaría de Estado para la Información, 1982. 7
- John Hooper, *Los españoles de hoy*, Trad, Madrid, Javier Vergara editor, 1987
- EI país 지, 특집 (¿Existe Europa?) 1991, 3·4월
- 민윤기, "EC투자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I)", 구주통상월보 89, 1991. 4
- 유승필, "일본 기업의 對구주 투자 진출 동향", 세계경제동향, 1991. 2
- 손병해, 경제 통합론, 법문사, 1989
- 손병해, "EC통합이 세계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럭키금성 경제연구소 창립3주년기념 국제 세미나, 1989. 8
- Timothy M. Devinney, "1992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상동, 1989
- 이윤호, "EC 통합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상동, 1989
- EEC 집행위원회, 유럽의 미래, 1986
- 이경숙, "EC통합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동향, 1991. 5
- 조창현, "일본기업들의 對EC 진출과 현지법인 경영전략", 세계경제동향, 1991. 4

- 한국무역협회, EC 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조사 91-28, 1991. 5
- 한국무역협회, GATT의 EC 무역정책평가, 조사 91-32, 1991. 6
- 한국무역협회, 남구주제국의 투자환경, 조사 91-03, 1991. 1
- KOTRA, 스페인, 국별 시리즈 90-19, 1990. 6
- 전경련, 전경련 monthly, 1988. 11
- 최충규, "EC역내 M&A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세계경제동향, 1989. 11
- 佐野貢 스페인은いま, 다이ヤモンド社, 1989.

La CE y la economía española

- el pasado, el presente y el futuro de la economía española -

Choi, Yoon-Kook

A lo largo del trabajo hemos observado en primer lugar, la posición de la CE en el ámbito del bloqueo de la economía mundial ; en segundo lugar, la inserción de España en la CE en el aspecto de su desarrollo histórico y cultural ; en tercer lugar, la etapa del desarrollo económico de España ; en último lugar, el puesto de España en la CE en comparación con varios indicadores macro - económicos, la estructura económica y la balanza comercial.

España está despertando del largo letargo convirtiendo su historia aislada de Europa en unión con la misma. Históricamente España venía desarrollándose como un país de agricultura hasta los años 60. Luego se convirtió en un país industrializado de grado medio a lo largo de los 60 y 70.

Por lo tanto, España se trasladó de "los años de hambre" de los 40 a "los años del desarrollo" de los 60.

Durante esa época, España primeramente solicitó su adhesión a la CEE en el 62 demostrando su esfuerzo por la liberalización y la apertura hacia el mundo aunque no cambió el sistema político hasta el año 1986 después de obtener el éxito democrático por los Pactos de la Moncloa del año 77.

Para España el año 92 significa era nueva que parte para afrontar el siglo 21 y el último año del proceso integrador de la CE.

Además, durante este mismo año en España se desarrollarán importantes acontecimientos : los Juegos Olímpicos de Barcelona, la Exposición Universal de Sevilla y la conmemoración del Quinto Centenario d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y Madrid como Capital Cultural Europea.

El año 93 zarpa al mercado único europeo.

Totalmente, España es uno de los Doce de Europa. Por lo tanto, España quiere conseguir su rápido crecimiento económico en cooperación con la

CE, quiere aprovechar esta ocasión como reorientación histórica y quiere adoptar un neo-capitalismo liberal para llegar a ser un buen miembro en la sociedad internacional. Los españoles también van eliminando de su mentalidad el apodo con que eran conocidos : "Hasta mañana" Además, si se funden con éxito los tres símbolos españoles-el flamenco, el toro y el sol-con el crecimiento económico, el futuro de España será un camino de rosas.

Por otro lado, le quedan a España unos problemas internos que resolver : incremento de empleos, el buen equilibrio entre la oferta y la demanda de energía, el aumento de la exportación, la reducción de la inflación, la fuerte competitividad internacional de empresas y el ajuste de la sociedad dual.

España ocupa el quinto puesto en el campo económico de la CE ; no quiere seguir siendo un país meridional de los Pirineos sino seguir su camino hacia el núcleo de Europa.